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임팩트 보고서

함께 만드는 내일의 성장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임팩트 보고서

함께 만드는 내일의 성장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은 전국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중고등학생과 전국 석탄산업전환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을 연결하는 따뜻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이 보고서는 10개월간 하이드와 하이שמ으로 만나 서로를 도우며 성장한 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남한규입니다.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임팩트 보고서」 발간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1년간 장학생 여러분이 만들어낸 성장과 변화의 기록입니다.

2008년 시작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은 지역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인재의 가능성을 키워왔습니다. 이제는 전국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확장되며,
곧 누적 수혜 인원 1만 명이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삼각 멘토링 모델'을 통해 이어지는 나눔의 선순환은
이 사업의 가장 큰 가치이자 성과입니다. 배움은 다시 나눔으로 이어지고,
그 나눔은 또 다른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장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도전,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응답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작은 변화들이 모여 지역의 내일을 밝히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성장이 곧 지역의 미래라는 믿음으로,
지속적인 지원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진로 탐색부터 다양한 경험의 기회에
이르기까지, 성장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장학생 여러분의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점프 대표 은초롱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장해 온
하이샷과 하이디 여러분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시간과 변화는 단순한 프로그램의 종료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한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꾸준하게 진정성 있는
사회 공헌을 이어오고 계신 강원랜드 남한규 대표이사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강원랜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미래 세대를 고민하고 연결해 온 과정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과 사람을 잇는 소중한 협력의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면서도, 다시 고향의 청소년들과 연결되어 배움과 성장을 나누는 하이샷,
하이샷과의 만남을 통해 더 넓은 가능성을 발견하고, 스스로의 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하이디는 연결 속에서 더욱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지역 안팎의 사람을
연결하고 세대를 잇는 성장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앞으로도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미래 세대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다양한 기회를 만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2026년,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선택과 도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ONTENTS

Prologue

- 006 사업 소개
‘함께 만드는 내일의 성장’
- 007 용어 정리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언어
- 008 히스토리
걸어온 길
- 009 사업 일정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추진 일정
- 010 임팩트 인사이트
숫자로 보는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High1Ship

하이쌤 인터뷰

- 014 정선 전민주 하이쌤
‘하이쌤’이라는 든든한 갑옷을 얻다
- 016 문경 이은진 하이쌤
초석으로 향하는 첫걸음
- 018 삼척 이승민 하이쌤
조력의 시간, 성장의 시간
- 020 화순 최윤경 하이쌤
소통할 수 있는 용기, 도전할 용기를 얻다
- 022 태백 김민철 하이쌤
인생의 시야를 넓히다

하이다 인터뷰

- 024 보령 장한솔 하이다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어른을 만났어요
- 026 삼척 심민규 하이다
내 삶을 능동적으로 사는 법 배웠어요
- 028 영월 조은서 하이다
해매는 만큼이 나의 길이란 것 알았어요
- 030 화순 문주영 하이다
고민을 다루는 자세 배웠어요
- 032 삼척 김윤미 하이다
진짜 나를 찾을 용기 얻었어요



짝꿍 인터뷰

- 034 신찬주 하이쌤+김태우-정지민-천희정 하이다
우리, 서로의 동료가 되다
- 038 진준엽 하이쌤+이세아-전승현-현진아 하이다
4인 4색이 만든 아름다운 하모니
- 042 이정민 하이쌤+권경민-김민정-변효영 하이다
무한한 애정으로 서로의 정신적 지주가 되다
- 046 김경은 하이쌤+김보은 하이쌤
어디서든 우리답게 빛나는 법을 배우다
- 050 이권우 하이쌤+이예나 하이쌤
서로의,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찾다

High Program

- 056 포토 뉴스
2025 활동 모아보기
- 058 발대식 및 사전교육
하이쌤과 하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시작
- 060 부스팅캠프
하이쌤, 하이다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2박 3일
- 062 사회인 멘토링
하이쌤,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 064 꿈키움 멘토링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4개월 14회의 기록
- 066 입시 서포터즈
대학교로 이끌어주는 하이쌤, 배우며 따라가는 하이다
- 068 수료식
하이쌤과 하이다가 함께여서 더욱 빛났던
10개월의 여정
- 070 활동 최우수 해외탐방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미래, 하이 베르크 베르크

Higher Community

- 074 지도 뉴스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지도 뉴스
- 076 지역 커뮤니티 ① 멘토링데이 IN 로컬
· 정선, 사진으로 담다 : 로컬 사진작가 멘토링
· 문경에서 빛어낸 12년, 흠이 건네는 진심의 기록
- 078 지역 커뮤니티 ② 폐광지역 스쿨어택 이벤트
따뜻한 간식차, 똑똑한 특강으로 채우는 겨울 추억
- 080 사람 커뮤니티 ① 커뮤니티 소모임
같은 관심사로 연결된 알럼나이와 하이쌤 그리고 하이다
- 084 사람 커뮤니티 ② 알럼나이 간담회
알럼나이와 하이쌤이 함께한 따뜻한 시간
- 086 커뮤니티 인터뷰 ① 알럼나이
관상학·여의진 알럼나이
- 088 커뮤니티 인터뷰 ② 사회인 멘토
이수현·신승협·이경민·이혜진 멘토

Epilogue

- 094 코멘트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_____ 다.
- 096 성장 기록
하이쌤 활동보고서
- 098 성장 기록
하이다 성장 포트폴리오

‘함께 만드는 내일의 성장’

전국 석탄산업전환지역(정선·태백·영월·삼척·문경·보령·화순) 중·고등학생 및 전국 석탄산업전환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에게 생활 안정을 통해 학업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체계적인 교육 및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해 전인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강원랜드의 대표적인 교육 장학사업입니다.

미션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미래세대가 계속해서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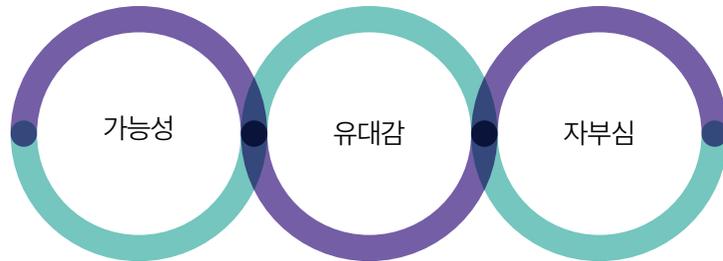
비전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지지망을
지역 내외로 구축해 나갑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정체성은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 지원에 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청소년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며,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새롭게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베네핏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끈끈한 유대를 바탕으로 심리적 안도감을 경험하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언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우리의 언어를 소개합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기존 폐광지역)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탄광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되거나 석탄생산이 감축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된 지역을 말한다.
강.멘.장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줄임말.
하이샘(HI:SAM)	청소년의 성장을 견인하고 함께 나아가는 대학생 멘토. 'HIGH'의 'H'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선생님'을 의미하는 '샘'을 결합한 명칭.
하이디(HI:D)	꿈과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배움을 실천하는 청소년 멘티. 'HIGH'의 'H'와 웃는 이모티콘 'D'를 결합한 명칭.
알림나이	졸업생·수료생의 의미를 지닌 영어 단어 'Alumni'를 차용해 활동을 마친 모든 수료생을 통칭하는 용어. 대학생 멘토에서 사회인 멘토로 성장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명칭.
삼각 멘토링	청소년-대학생-사회인으로 연결되어 다음 세대의 성장을 돕는 선순환 고리. 하이디가 하이샘으로, 하이샘이 사회인 멘토로, 나눔과 배움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성장하며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할 수 있다.
하이하우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의 귀여운 마스코트.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 하이디와 하이샘으로 변신한 하이하우도 만날 수 있다.

걸어온 길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은 2008년부터 석탄산업전환지역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과 대학생을 지원하고, 석탄산업전환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 2008** ◉ **교육 장학사업의 시작**
 - 하이원 장학사업 시작. 강원 석탄산업전환지역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 2011** ◉ **수혜 대상 확대**
 - 강원 석탄산업전환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 2016** ◉ **수혜 지역 확대**
 - 중·고등학생 수혜지역 확대 (강원 석탄산업전환지역 → 전국 석탄산업전환지역)
- 2020** ◉ **멘토링 시작**
 - 온라인 멘토링 및 맞춤형 성장 프로그램 도입
 - 예능 장학생 시범 지원
 - 장기지원 제도 도입
- 2021** ◉ **사업 임팩트 홍보**
 - 홍보 서포터즈 '하이ON' 1기 운영
 - 강원 석탄산업전환지역 청소년 학습 역량 강화 연구 진행
 - EBS 미래교육 플러스 방영 '꿈의 씨앗을 심는 멘토링'
- 2022** ◉ **성장 고도화, 변화 시도**
 - 강원 석탄산업전환지역 청소년 학습 역량 강화 연구 보고 및 심포지엄 개최
 -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네이밍 공모전 진행
 - 활동 우수 사례 시기 공모전 진행
 - 유튜버 크리에이터 협업 '공부의 숲 프로젝트'
 - 활동 최우수자 미국 해외탐방 진행

- 2023** ◉ **장학사업 전국 확대**
 - 대학생 멘토 선발 지역 및 인원 확대
 - 강원 외 석탄산업전환지역 온라인 멘토링 시범 운영
 - SOS 장학생 선발 지역 확대 및 지원 기준 완화
 - 부스팅캠프 시범 운영
 - 장학사업 리브랜딩 진행
- 2024** ◉ **커뮤니티 확장**
 - 청소년 멘티 전원 온라인 멘토링 참여
 - '멘토링데이 IN 로컬' 신설 운영
 - '커뮤니티 소모임' 신설 운영
 - '스쿨어택 이벤트' 대중 홍보
 - 활동 최우수 해외탐방 참여 대상 및 인원 확대 (대학생 → 대학생+청소년)
- 2025** ◉ **성장 프로그램 고도화**
 - 멘토링 장학으로 위기 청소년 유입, 정서적 지지체계 마련
 - '부스팅캠프' 규모 확대 (1박 2일 → 2박 3일)
 - 청소년 진로 멘토링 월별 상시 진행
 - 입시 서포터즈 '하이UP' 1기 운영
 - '스쿨어택 이벤트' 규모 확대 (1개교 → 5개교)
 - '알려나미 간담회' 신설 운영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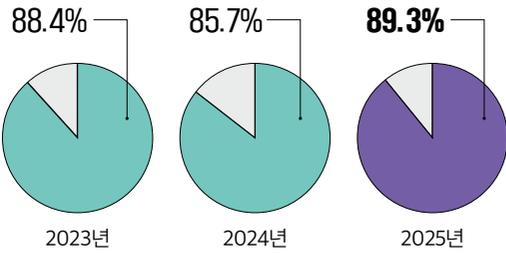
세부내용	2025년									2026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장학생 신규 모집/선발												
온라인 멘토링												
장학금 지급												
장학생 성장 프로그램	발대식 및 사전교육											
	부스팅캠프											
	사회인 멘토링											
	꿈키움 멘토링											
	입시 서포터즈											
커뮤니티 활성화	커뮤니티 소모임											
장학사업 홍보	사전/사후조사											
	대중홍보 이벤트											
활동 마무리	수료식											
	해외탐방											

숫자로 보는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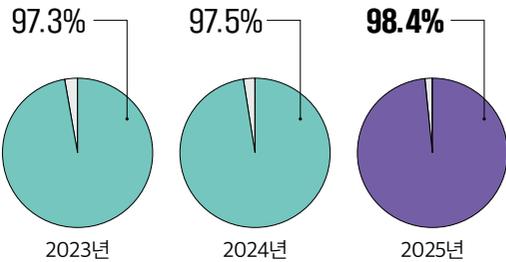
1.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만족도

‘대학생, 청소년 모두 지난 3년 중 최고치 기록’

하이디



하이쌤



2. 추천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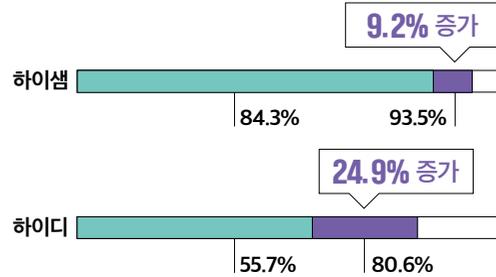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내 형제·자매나 친구에게 얼마나 추천하고 싶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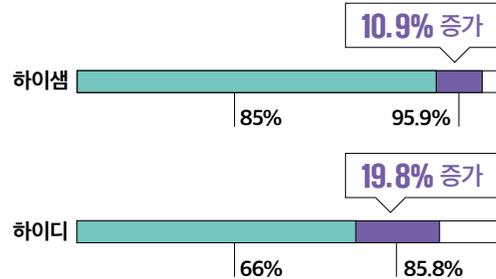
3. 주최기관 인식 제고

* 2025 사전-사후조사 긍정평가(매우 그렇다, 그렇다) 비율 비교
■ 사전조사 ■ 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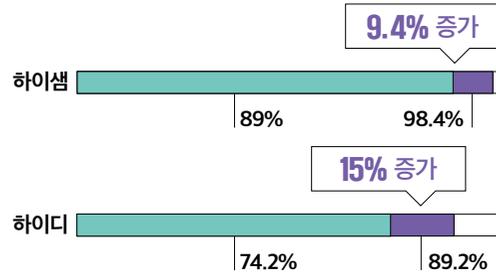
기업 인지도 향상 사업 참여 후 강원랜드를 더 잘 알게 되었다



기업 호감도 향상 사업 참여 후 강원랜드에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기업 이미지 제고 사업 참여 후 강원랜드가 미래세대 교육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이쌤]

1. 성적 향상

장학 사업 참여 이후 고득점(A학점) 획득 비율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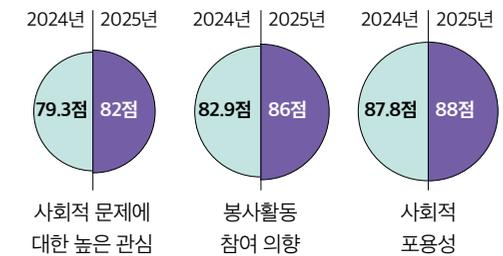


2. 소프트 스킬

* 2025 사전-사후조사 비교 (100점 만점 중 평균 점수)
■ 사전조사 ■ 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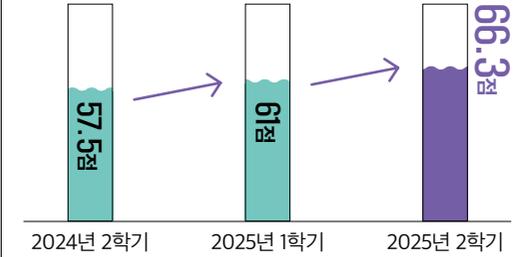


3. 사회적 가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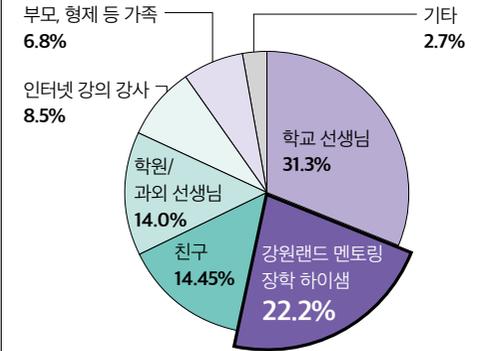
[하이디]

1. 성적 향상 (*전 과목 성적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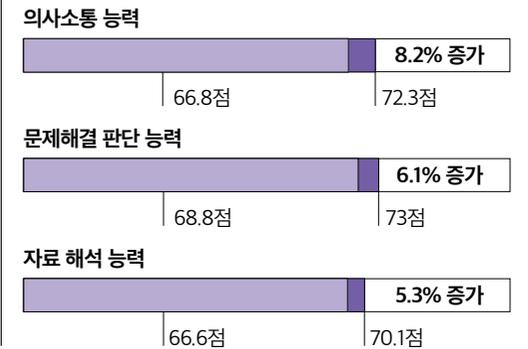
2. 학습 참여 현황

Q. 공부할 때 누구에게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학습 과정에서 대학생(하이쌤)으로부터 학교 선생님 다음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3. 소프트 스킬



High1Ship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을 기반으로 '관계'를 구축합니다.
참여자들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장학생으로서 더 큰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서 마음을 나눈 장학생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하이쌤'이라는 든든한 갑옷을 얻다

정선 전민주 하이쌤



정선의 전민주 하이쌤에게 하이쌤으로 활동한 10개월의 시간은 자신 안의 두려움을 깨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갈 용기, 부딪히고 깨져도 안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얻은 든든한 인생의 갑옷이 돼주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덕성여자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2년 차 하이쌤 전민주입니다.

#관계(relationship)

함께한 하이디들은 어떤 친구인가요?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올해 함께 한 하이디는 갓 성인이 된 황지혜, 장경찬 하이디와 고3이 되는 임수산나 하이디입니다. 모두 저와 같은 정선 지역 하이디라 지역 후배와 이어져 기뻐한 기억이 납니다. 저희 하이디들은 모두 내향형이라, 멘토링 초반엔 수줍게 인사하거나, 신중하게

말을 골라 대답하곤 했는데요. 하이디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와 줬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담 시간이 길어진 기억도 있습니다.

하이디들과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며 관계가 깊어졌다고 느낀 '전환점'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수산나 하이디가 먼저 고민 상담을 요청했을 때 '드디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믿고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관계의 변화를 실감하게 해줬죠. 한번의 특별한 활동을 통해 관계가 깊어졌다기보다는, 수업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한 시간들이 축적돼 지금의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정선·진로 멘토링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함께 목표 대학을 정하거나, 영화를 보고 토론하는 등의 하이디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멘토링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경찬 하이디와의 연말 결산 멘토링인데요. 멘토링 중 '2025년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경찬 하이디는 "저는 지나간 일은 후회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찬 하이디는 가볍게 던진 말이었지만, 당시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저에게는 그 한마디가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강멘장은 하이쌤과 하이디가 서로 영향을 주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장(growth)

멘토링 시작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새로운 환경에 놓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쌤'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후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멘토라는 역할이 주는 책임감 덕분에, 이전에는 망설였을 도전들도 먼저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쌤'으로 활동하며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금 통해 연결된 커뮤니티가 제 일상과 연결될 때, '하이쌤'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0개월 간의 멘토링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는 하이디가 있고, 부스팅캠프에서 맺은 인연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하이쌤과 알려나미 선배들도 있습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강멘장 커뮤니티가 단순히 지나갈 시절 인연이 아니라, 제 삶과 연결된 관계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동시에 저 또한 이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깨달을 때 자부심을 느낍니다.

#연결(connect)

이 프로그램을 친구나 동생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집과 학교를 넘어 자신의 세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자신 있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란 지역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정선은 '굽이굽이 소리가 흐르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정선은 산과 강을 따라 삶이 이어져 왔고, 특히 정선의 아라리는 삶의 모습을 가락에 실어 산과 강을 따라 이야기를 전해왔거든요.

#확장(expansion)

3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___이 되고 싶다'를 완성해 보다면?

3년 후 저는 어떤 매체, 어떤 형태로든 이야기와 사람을 잇는 이야기꾼이 되어 있기를 꿈꿉니다. 저는 예술은 대중과 만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습니다. 예술이 대중을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도록 소개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커뮤니티로 성장하길 바라나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지금처럼 꾸준히 학생들을 지원하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향' 같은 커뮤니티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10개월 동안 함께한 하이디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경찬이, 지혜, 수산나! 10개월 동안 참 할 일 많은 쌤이랑 수업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가 함께 보낸 10개월이 여러분에게 다시 꺼내 보고 싶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나에게 일주일에 4시간,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은 그 주의 원동력이 되었어! 늘 웃는 얼굴로 인사해 줘서 고마워요. 벌써 10개월의 멘토링이 끝났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연락 주고받고! 지역 선후배로서 만나야죠? 10개월 동안 고마웠어! 너희의 도전을 늘 응원할게!



지혜 하이디가 만든 카드뉴스



영화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보여 진행한 멘토링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당장은 알려나미로, 나아가는 사회적 멘토로 계속 연결되고 싶습니다. 강멘장을 통해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언젠가는 저도 후배들에게 그 마음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제가 꿈꾸는 모습, 예술과 대중을 잇는 이야기꾼이 되어 사회적 멘토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초석으로 향하는 첫걸음

문경 이은진 하이שמ



문경의 이은진 하이שמ에게 지난 10개월의 멘토링은 하이드는 물론 자신에게도 단단한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준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토대로 이제 이은진 하이שמ은 단단한 초석 같은 사람을 꿈꾼다.



승윤 하이드와 진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고등학교를 결정할 때엔 꿈이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무턱대고 인문계로 진학한 기억이 나서 조금 이렇지도 모르지만 지금 하이드가 선호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원래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업 때 버벅이기 일쑤인데, 이때만큼은 술술 말하게 되더라고요. 하이드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했고, 제 자신이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하던 아쉬움이 남아있었던 이야기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치에 대한 뿌듯함도 들어서 기억에 남았어요.

#연결(connect)

이 프로그램을 친구나 동생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어요. 대학 생활을 하다 보니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러다보니 학업에 순전히 집중하는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럴 바엔 유대감도 쌓고, 배우는 것도 생기고 장학금 덕에 학업에도 집중하기 좋은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승윤 하이드의 국어 성적 올리기 멘토링! 함께 열심히 공부한 흔적들



강예지 하이드와 진행한 그림 수업

10개월 동안 함께한 하이드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이런 부족함 많은 하이שמ이어도 늘 잘 들어줘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마워. 내가 뭘 해주는 게 좋을까 많이 고민했는데 너희들이 좋게 반응해 주지 않았더라면 끝날 때까지 나 자신이 정말 잘한 걸까 의심하고 주눅들어 있었을 거야.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너희들의 미래에 꽃길만 가득하길 바라. 내 연락처는 그대로니까, 언제든지 힘들 때면 편하게 연락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앞으로 하이שמ으로서 좀 더 연결되고 싶습니다. 좋곤 하이드였다가 처음으로 하이שמ을 맡다 보니 아쉬운 점도 많았고,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미련이 생기는 건 별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음 멘토링을 진행할 때는 후회 없이 하이드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하이שמ이 되고 파요.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줄곧 하이드로서 멘토링을 받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이ש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하게 된 이은진입니다.

하이드들과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며 관계가 깊어졌다고 느낀 '전환점'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정확하게 꼽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수업을 진행하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서히 편해지고, 그러다 보니 연락하는 빈도도 점차 늘어나면서 친해진 것 같거든요. 매순간이 전환점으로 느껴진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하이드 별로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강예지 하이드와는 취미를, 장찬우 하이드와는 진로를, 노승윤 하이드와는 국어학습을 위주로 수업을 진행했어요.

#성장(growth)

멘토링 시작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이전보다 일정 관리를 이전보다 꼼꼼하게 하게 되었다는 점이요.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일정에 무리가 없도록 시간을 조율하고, 맞춰야 하다 보니 나 자신의 일정에도 체계가 생기더라고요.

'하이שמ'으로 활동하며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노승윤 하이드의 국어 성적이 좋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멘토링으로 학습을 보조한 과목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것이 하이שמ으로써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멘토링의 목적을 가장 잘 이루었다는 생각도 들고, 자신의

내가 자란 지역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변함없는 나의 종착지' 라고 말하고 싶어요. 멀리 대학을 온 지금도 제가 돌아가고 싶고, 편안함을 느끼는 유일한 곳이기도 해요. 자주 가지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취업을 하고, 어떤 삶을 살게 되든 쉴 때는 무조건 문경으로 향할 것 같아요. 문경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도 줄곧 갖고 있었어요.

#확장(expansion)

3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__이 되고 싶다'를 완성해 보다면?

저는 초석이 되고 싶습니다.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뿌듯한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드들 말고도, 주변에 도움이 되고 싶어졌어요. 3년 후면 제 대학 후배들도 많이 생길 텐데 불안함이 많은 친구들에게 제가 든든한 기초가, 바닥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커뮤니티로 성장하길 바라나요?

지금도 충분히 폐광지역의 아이들끼리 유대감을 쌓기 좋은 커뮤니티이지만, 앞으로 좀 더 많은 하이드들과, 하이שמ들을 만날 수 있는, 더 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늘 화이팅입니다!



조력의 시간, 성장의 시간

삼척 이승민 하이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척 지역 1년 차 하이쌤 이승민입니다.

#관계(relationship)

함께한 하이디들은 어떤 친구인가요?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삼척 지역의 김진, 이원일 하이디와 정선 지역의 조병일 하이디입니다. 김진 하이디는 초반에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잘 웃고 굉장히 재밌고 유쾌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원일 하이디는 처음에는 진중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수능이 끝나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오프라인 만남까지 하고 나서는 서로 편하게 장난도 치는 사이가 되었고요. 조병일 하이디 역시 초반에는 낮가림이 화면 밖을 넘어서도 전달될 정도였지만 어느새 본인의 소중한 일상을 저에게 하나둘씩 먼저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하이디들과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며 관계가 깊어졌다고 느낀 '전환점'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3명의 하이디마다 전환점이 다 달랐는데, 원일 하이디가 어느 날인가 멘토링 시간이 아닐 때 카톡으로 공부 관련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저는 조금 감동이었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연락했는데, 이렇게 원일이가 먼저 연락한 게 저를 조금은 편하게 생각한다는 신호 같았거든요. 김진 하이디는 갑자기 연락 두절과 함께 멘토링에 결석한 날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때 화가 나기보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동안 진이는 재미있는 친구인 것 같았는데, 묘하게 멘토링 때는 어색함이 남아 있어서인지 조용했거든요. 연락 두절 이후 다음 수업 때 진이에게 '너 이제 내가 아주 편해졌구나~?' 라고 슬쩍 말했는데, 진이가 박장대소를 하면서 그동안의 어색함이 사라지고 그 이후로는 정말 개인적인 이야기까지도 공유하는 형동생 사이가 됐어요. 병일 하이디와는 '모바일 게임'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사이가 확 가까워졌고요.

어떤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저는 원일 하이디와는 지구과학 수업을, 병일 하이디와는 영어 독해 수업을, 김진 하이디와는 진로 탐색 및 정서 멘토링을 위주로 진행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자면, 원일 하이디와의 오프라인 멘토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후 지친 원일에게 힘이 되고 싶어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만났거든요. 함께 바다를 보며 서로의 미래에 대해 사뭇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순간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져서 정말 좋았습니다. 인생의 고민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한 것 같아 감동이었습니다.

삼척 이승민 하이쌤에게 지난 10개월은 영화 속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처럼, 하이디를 도우며 최상의 결과를 끌어낸 의미 깊은 시간이었다. 이제 그에게 자신을 위한 성장의 가능성이 남았다.



#성장(growth)

멘토링 시작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항상 제가 편하고 익숙한 사람을 위주로 만나고 대화를 했는데, 멘토링을 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됐거든요. 최근엔 아버지의 생일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시장에 있는 중고 LP 상점에 방문했는데, 그곳의 처음 빈 사장님과 무려 2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장님의 스톱토크에 몸이 반응했고 그렇게 또 하나의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하이쌤'으로 활동하며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와 함께한 원일 하이디의 역대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엄청난 도파민과 함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제가 잘 수행한 것 같아 자부심과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연결(connect)

이 프로그램을 친구나 동생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비공식 강.멘.장 홍보위원이라고 자칭할 수 있을 만큼 제 주변에 추천을 가장한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향친구들은 물론 대학동기들까지 모두가 강멘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제 하이디인 원일에게 하이쌤 지원을 강력 추천했는데,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하이쌤을 해보니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란 지역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내겐 너무 익숙해서 더 소중한 곳'. 요즘은 정말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발전해서 무언가에 익숙함을 느끼는 것이 힘든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삼척은 역설적으로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소중한, 몽글몽글 떠오르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일 하이디와 함께 한 오프라인 멘토링 시간

#확장(expansion)

3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___이 되고 싶다'를 완성해 보다면?

'나는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다.' 3년 후에는 한의사로서 멋지게 활동하며 몸도 마음도 성숙한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커뮤니티로 성장하길 바라나요?

강멘장이 더욱 확장돼서 더 많은 하이디와 하이쌤이 연결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10개월 동안 함께한 하이디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원일이 앞으로 펼쳐질 너의 멋진 대학 생활을 응원할게! 심심하면 언제든 연락하고 다음에 보자! 진야 그동안 너가 전해준 밝고 쾌활한 에너지가 내 삶에서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어. 남은 고등학교 생활도 항상 응원한다! 병일이 항상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멘토링에 참여해 줘서 고마워. 너의 그 꾸준함이 내겐 정말 큰 힘이 되었어. 다음에 정선 한 번 놀러 갈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하이쌤으로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졸업 후엔 저와 비슷한 꿈을 지닌 친구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회인 멘토로 활동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소통할 수 있는 용기, 도전할 용기를 얻다

화순 최윤경 하이שמ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통합디자인학과 2학년 재학 중인 화순 출신 하이שמ 최윤경입니다. 세 명의 하이디들과 함께 1년간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관계(relationship)

함께한 하이디들은 어떤 친구인가요?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장 많이 달라진 하이디는 현우 하이디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색해했는데 어느 순간 저와 친해지고 마음을 열었는지 먼저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말도 해주고, 좀

더 활기찬 모습으로 멘토링에 임할 때가 가장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이디들과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며 관계가 깊어졌다고 느낀 '전환점'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부스팅캠프가 특히 현우 하이디와 멘토링을 진행하며 가장 큰 전환점이 되어준 것 같습니다. 저와 현우 하이디가 동등한 '팀원' 역할로 함께 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2박 3일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기도 했고, 마지막 날 조원들끼리 롤링 페이퍼를 써주었는데, 현우 하이디가 제게 '멘토링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굉장히 많다'라고 써준 것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하이디가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하이디의 필요에 따라 학습, 정서, 진로 등의 다양한 멘토링을 진행했는데, 하이디들과 서로 초상화 그려주기 활동을 진행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하이디들이 그려준 저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하이디들에게 이런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었고, 그간 멘토링 시간에 했던 말과 행동에 대해 돌아보게 해주는 계기가 됐거든요.

#성장(growth)

멘토링 시작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시간 관리 능력과 소통 능력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멘토링 이외에도 다른 부가적인 활동을 정말 많이 해서 바쁜 한 해였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해내며 저에 대한 믿음도 많이 쌓이고 뭐든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막연히 어린 나이의 친구들과과는 소통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멘토링 후 진정한 소통에 나이가 장애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를 좀 더 배운 것 같습니다.

'차이'는 소통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큰 가르침 아래, 최윤경 하이שמ은 이제 현실과 타협하거나 지레 겁먹지 않고 무엇에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라는 큰 힘을 얻었다.



하이하우 그리기 이벤트 출품작

'하이שמ'으로 활동하며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수료식이요! 하이שמ으로서의 1년을 무사히 마무리했다는 사실과 함께, 수료식 현장에 앉아 있으니 지난 1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막막함 속에서 시작했던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해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와닿았습니다. 1년간의 긴 활동을 마쳤다는 의미를 넘어 저 자신도 하이שמ으로서 많이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어 가장 큰 자부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연결(connect)

이 프로그램을 친구나 동생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선 장학금을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멘토링 활동 역시 꼭 교육 관련 전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누군가와 시간을 나누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큰 배움이기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내가 자란 지역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화순은 '하나의 우물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우물이 저라는 개구리에게 때로 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더 넓은 바다로 나가기 전까지 저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준 삶의 터전이었고, 힘들 때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 되어주었습니다. 또 이 우물 안에서 만난 여러 인연은 제가 흔들릴 때마다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그곳에서 쌓은 추억들은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확장(expansion)

3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___이 되고 싶다'를 완성해 보다면?

저는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현실과 먼저 타협하거나 지레 겁먹기보다,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부딪혀보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커뮤니티로 성장하길 바라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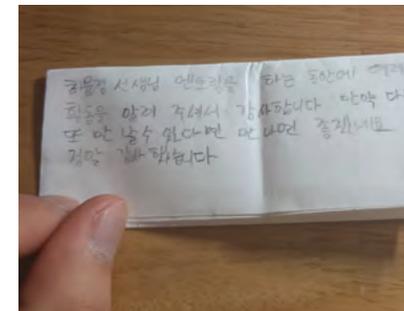
1년 동안 활동하며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알람나이로서 이 인연들을 이어가고, 후배 하이שמ들, 그리고 하이디들과도 경험을 나누며 계속 연결되어 있고 싶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오래도록 건강하게 이어지며, 더 많은 하이שמ과 하이디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응원합니다.

10개월 동안 함께한 하이디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민채, 현우, 선우 하이디! 서투른 하이שמ이었지만 1년 동안 잘 따라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앞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알람나이와 더 나아가 사회인 멘토로도 활동해 보고 싶습니다!



부스팅캠프에 같이 참여한 현우 하이디가 롤링페이퍼에 써준 감동의 메시지



인생의 시야를 넓히다

태백 김민철 하이שמ



남을 가르치는 멘토링을 통해 자신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김민철 하이שמ은 좁은 시야를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눈을 돌리며 인생의 시야를 넓힐 용기를 얻었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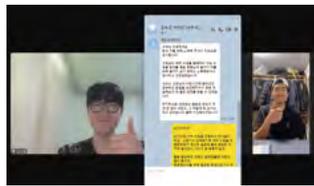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1년 차 태백 지역 하이שמ 김민철입니다.

#관계(relationship)

함께한 하이디들은 어떤 친구인가요?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과 시간이 지나며 달라진 점이 있다면?

총 세 명의 하이디들과 함께했는데, 보현 하이디는 처음에 국어 공부에 큰 어려움을 느끼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점차 지문을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기출 분석 요령을 스스로 터득하며 훌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태은 하이디와는 태은이가 읽고 싶어 하던 책을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누면서 서로의 가치관과 소소한 일상까지 깊게 공유하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도건 하이디는 첫 만남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무해한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수업에 참여해 주어, 오히려 멘토인 제가 도건이에게 큰 힘과 위로를 받은 적이 많습니다.



도건 하이디와 편지쓰기 멘토링!

하이디들과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며 관계가 깊어졌다고 느낀 '전환점'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공통된 관심사와 서로의 일상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이 관계가 깊어지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전환점 이후로는 평소에도 본인의 일상과 깊은 고민거리까지 스스럼없이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기본적인 학습 지원과 정서 지원을 위한 오프라인 만남과 편지 쓰기, 여러 학과에 대한 소개와 특정 직업에 대해 탐색하는 진로 수업까지 다방면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태은 하이디와 시를 활용해 댄서와 음악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는데, 태은 하이디가 평소 기타 연주 동아리에서 활동할 만큼 음악에 관심이 많아서 시를 활용해 음악을 제작하는 과정에 큰 흥미를 보이며 즐거워해서 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수업을 계기로 하이디의 관심사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보현 하이디와 함께 쓴 버킷리스트

#성장(growth)

멘토링 시작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예전의 저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 걱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지원할 때도 고민이 많았는데, 직접 경험해보니 오히려 제가 얻고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뜻깊은 경험을 거치고 난 지금은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망설이기보다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일단 도전해 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으려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무척 만족합니다.

'하이שמ'으로 활동하며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하이디가 제 수업 덕분에 한층 성장한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입니다. 수업이 끝나 후 보현이가 "선생님 덕분에 이제야 국어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라고 말해주었는데,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네요.



태은 하이디와 진행한 진로 탐색 멘토링

#연결(connect)

이 프로그램을 친구나 동생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미 친한 친구와 동생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했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2026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활동에 지원하겠다고 했고, 동생도 군 전역 후 도전해 보겠다고 했어요.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같은 지역 후배들을 가르치며 학생들의 성장을 지켜볼 때 느끼는 보람을 꼭 경험해 보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멘토링을 통해 직무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현실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만족스러웠고, 이 프로그램이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기에 더욱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내가 자란 지역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태백은 맑은 공기와 사계절의 산이 일상이 되는 도시입니다. 사방에 높은 산이 펼쳐져 있어, 학창 시절 산을 바라보며 마음의 안정을 찾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확장(expansion)

3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___이 되고 싶다'를 완성해 본다면?

환자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설계하는 **작업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능적인 회복이 아닌 환자가 무엇을

가장 불편해하는지, 어떤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지 듣고 공감하는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이디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업 방향을 함께 정했던 것처럼 환자들에게도 함께 목표를 설정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커뮤니티로 성장하길 바라나요?

각자의 자리에서 멘토이자 배움의 주체가 되는 이 구조가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금의 따뜻한 방향성이 계속 유지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개월 동안 함께한 하이디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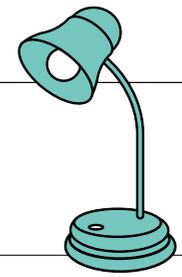
10개월 동안 선생님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선생님은 너희와 함께하면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한 것 같아서 고맙단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각자가 원하는 길을 가게 될 거야.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스스로를 믿고 무척하게 나아가길 바랄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보건계열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나누며, 그들이 겪는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든든한 사회적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어른을 만났어요

보령 장한솔 하이드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질문을 던져주고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의 든든한 힘을 느낀 장한솔 하이드는 그 든든함을 되돌려줄 멋진 어른이 될 준비를 마쳤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2년 차 하이드 장한솔입니다. 보령 지역 특성화고에 재학 중입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성적에 대한 아쉬움이 컸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관계(relationship)

하이샘은 어떤 분인가요? 짝꿍 하이샘을 소개해주세요!

윤서빈 하이샘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했는데, 하이샘은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를 지니신 분으로, 대화할 때마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멘토이기 이전에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어른 한 분이 생긴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큼니다

하이샘과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다면?

하이샘이 수학을 잘하셔서, 제가 가장 어려워하던 수학 과목을 중심으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대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도 했고요. 하이샘도 제 학교 생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제가 재학 중인 학교에 대해 조잘조잘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이샘과 10개월 간 쌓은 관계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이샘과의 10개월은 인간관계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것이 서툰 편인데, 관계는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 어색했던 분위기도 서로 질문하고 관심을 표현하려는 노력 덕분에 점점 편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저는 성적뿐 아니라 마음가짐과 태도에서도 성장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질문을 건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장(growth)

멘토링 시작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시작 전엔 고민이 생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혼자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의 저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할 줄 알고, 고민이 생기면 정리해서 말해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를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려 노력하는 태도도 생겼습니다. 멘토링은 저를 더 단단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하이디로 활동하며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발대식에서 대표 장학생으로 선정돼 발표했던 날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제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에 긴장도 됐지만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의 노력과 시간을 인정받는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순간이 더욱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연결(connect)

하이디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주세요.

제가 보령에서 좋아하는 점 첫 번째는 밤 10시 이후의 보령 시내입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 소음이 사라진 길을 혼자 걸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공간보다 이렇게 한적한 밤거리를 걸을 때 더 큰 힐링을 느낍니다. 다소 재미없게 느껴질 수 없는 지역인 보령이 저에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닷가입니다. 어릴 때 잠시 경주에 살다가 보령으로 이사 왔는데, 경주에선 거의 못 본

바다를 보령에선 30분만 가면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친구나 동생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심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기회가 아니라, 나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어른을 만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개월 동안 멘토링을 하며 많이 달라졌습니다. 혼자 고민하던 시간을 나누게 되었고, 미래를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방향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꼭 한 번 경험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확장(expansion)

3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___이 되고 싶다'를 완성해 본다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수많은 도전 속에서 성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멘토라는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용기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때의 저도 지금처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이었음 좋겠고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나요?

앞으로도 경제적 지원을 넘어, 멘토와의 관계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진로 방향성을 함께 잡아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처럼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연결 다리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10개월 동안 함께한 하이샘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10개월 동안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제 가능성을 조금 더 믿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질문을 건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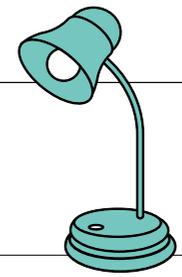
하이샘이 되어 하이디들에게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학 프로그램이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의 전환점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수료식 네트워킹에서 발표하는 장한솔 하이드

내 삶을 능동적으로 사는 법 배웠어요

삼척 심민규 하이드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삼척에 거주중인
고등학교 2학년 심민규입니다.

하이쌤과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다면?
주로 공부, 그중에서도 수학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실제로 수학
성적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수학
사고력이 는 듯해서 대만족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쌤이
연애상담 해주신 거?

좋아하는 카페에 사는
고양이 가족



#관계(relation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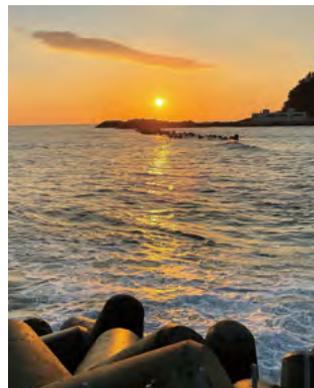
하이쌤은 어떤 분인가요? 짝꿍
하이쌤을 소개해주세요!
저의 하이쌤인 주예진 하이쌤은 처음
수업을 했을 때부터 제가 선생님
mbti를 맞출 만큼 투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인데 E인
척하려고 노력하셨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지금은 숙제
안 해오면 화는 안내시지만
그게 더 무서운 그런
하이쌤입니다.

하이쌤과 10개월 간 쌓은 관계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시간 약속 지키기요. 서로 일정에 맞춰
짜인 일정을 한 쪽에서 지키지 않으면
다른 한쪽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걸
배웠고, 또 그걸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의임을 배웠습니다.

#성장(growth)

멘토링 시작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루를 채울
힘이 생긴 점입니다.

하이디로 활동하며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친구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해주니 너무 뿌듯했을 때인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느껴져서 가장 기억에 남네요.



삼척의 아름다운 바다

하이쌤과 함께 성실히 하루하루를 채우며 능동적으로 사는 법을 배운
심민규 하이드는 이제 아쉬움 많던 생활패턴을 바로잡으며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며 한 걸음 성장했다

#연결(connect)

하이디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
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삼척은 석회
지형과 아름다운 바다와 산이 깔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장미 공원에
산책하거나 뛰러 자주 가는데,
저녁이면 오십천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운동하면
몸도 마음도 개운해져요. 그 밖에도
깨끗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많다는 게 삼척의 좋은 점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도 빼놓을 수 없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름이면 바다에
살다시피 해서 항상 여름엔 새까맣게
타 있었어요. 그만큼 바다에는
추억도 많고 언제 가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떨 때는 축제도 열리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한
곳입니다. 특히 후진바다는 정말
좋아요.

이 프로그램을 친구나 동생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저만 알고 싶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에게 꼭 추천하고 싶어요.
하이쌤과 수업하면서 성장하고
재밌는 캠프도 갈 수 있고 심지어
지원도 해주는데 추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확장(expansion)

3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_이 되고 싶다'를
완성해 본다면?
나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제
목표는 항상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자기 일정을
조절 잘해서 시간적으로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정신적으로나 여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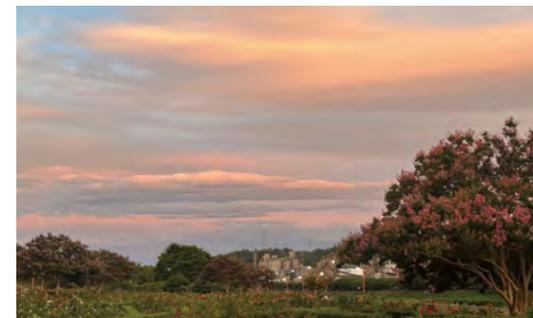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나요?
저 같은 폐광 지역의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합니다.

10개월 동안 함께한 하이쌤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쌤 저 항상 숙제를 다 하진 못했지만
선생님 덕에 진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2학년 돼서도 꼭 열심히
해서 쌤같이 수의학과 가보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하이쌤으로도 활동해 보고 싶어요.



부스팅캠프 하이운동회에서 MVP를 받은 심민규 하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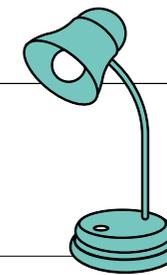


운동하거나 산책하러 자주 가는 장미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



헤매는 만큼이 나의 길이란 것 알았어요

영월 조은서 하이드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월에서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를 다니는 조은서 하이드입니다! 영월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쌤과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다면?

진로와 사회에 대한 멘토링을 주로 했습니다. 저는 이미 진로가 정해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경제나 소비 습관, 철학 등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이쌤과 의견을 나누며 철학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하이쌤은 어떤 분인가요? 짝꿍 하이쌤을 소개해주세요!

선배이자 조력자 같은 분입니다.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은연 중에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서로를 생각할 수 있는 든든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쌤과 10개월 간 쌓은 관계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행복은 거대한 것이 아니라 티끌이 모여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선생님과 소소한 약속을 지키고, 일상을 이야기하며 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2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배운 이 배움은 제 인간관계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성장(growth)

멘토링 시작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시작 전엔 뭔가를 하고 있어도 불안했고 하지 않아도 불안한 제 자신이 못 미더웠는데, 멘토링을 하며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다양한 성과를 이루면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튼튼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이디로 활동하며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해외탐방에 합격한 순간이요. 하이쌤과 멘토링을 하면서 멘토링 시간 중에 결과가 나오면 재밌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로 멘토링 중에 발표가 났고, 심지어 결과까지 너무 좋았기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이쌤께 말씀드리는 순간엔 나도 강.멘장 장학생이다!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연결(connect)

하이디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주세요.

저는 학기 중에 영월에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친구들과 영월을 거닐며 참 아름답다고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시작하기 전의 나에게 '헤매는 만큼이 나의 길'이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는 조은서 하이드의 마음속엔 이제 길을 잃어도 다시 바른길로 들어서도록 해줄 큰 이정표가 생겼다.

생각했습니다. 겨울엔 봉어빵을 먹으며 거리를 구경하고, 여름엔 학교 안에서 물놀이를 하며 영월에 대한 애정이 정말 커진 것 같습니다. 또 내 꿈을 이루게 될 곳이란 점이 정말 뜻깊은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친구나 동생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살던 지역과는 다른 영월에 오면서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 힘들음을 극복하게 해주는 조력자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 동생과 친구들도 이런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확장(expansion)

3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___이 되고 싶다'를 완성해 본다면?

나는 행복이 되고 싶다. 행복을 느끼는 만큼 주변과 행복을 나누고 공감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면 결국엔 모두가 행복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나요?

모든 학생에게 힘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만큼 언제나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다시 일어날 힘이 돼주면 좋겠습니다.

10개월 동안 함께한 하이쌤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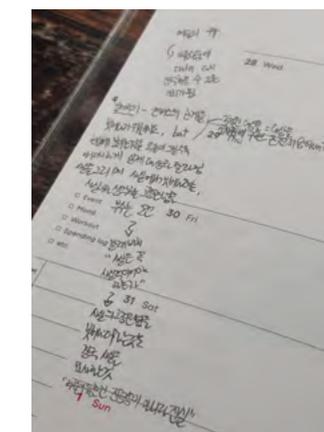
장원영 하이쌤! 10개월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뵈 때는 더 성장한 제가 되고 싶어요. 꼭 뵈고 싶어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하이디로 10대를 보내고, 후엔 알람나이로 활동해 선순환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영월의 풍경들



하이쌤과 함께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멘토링 시간의 증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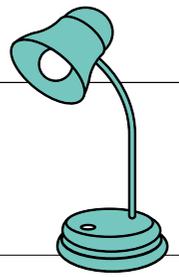


수료식에서 활동 최우수 표창장을 받은 조은서 하이드



고민을 다루는 자세 배웠어요

화순 문주영 하이드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화순군에 거주하며 환경 활동에 관심이 있는 문주영입니다.

#관계(relationship)

하이샘은 어떤 분인가요? 짝꿍 하이샘을 소개해주세요!

하이샘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기품 있어 보여서 조금 긴장되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따뜻하고 편안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은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든든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하이샘과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다면?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고민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해도 될지 스스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이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일단 한 번 도전해 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용기가 되었고, 하이샘의 조언 덕분에 저는 쓰레기 줍기 활동과 일상 속 환경 보호 실천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었습니다.

하이샘과 10개월 간 쌓은 관계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고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전엔 고민이 생기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거나 피하려는 경우가 많았지만, 멘토링을 통해 차분히 정리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성장(growth)

멘토링 시작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작은 실천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고, 새로운 도전을 앞두면 쉽게 망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제 선택을 믿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먼저 도전해 보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이드로 활동하며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실천한 쓰레기 줍기 활동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생겼을 때입니다. 혼자서 시작한 작은 행동이었던, 누군가가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라고 말해 주었을 때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활동이 단순한 쓰레기 줍기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죠.

인생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의 반복이다. 이 반복에서 자신의 결정을 믿고 한 발 내디딜 힘을 얻은 문주영 하이드는 이제 선택이 두렵지 않다. 10개월의 멘토링 기간 동안 배운 가르침 덕분이다.

#연결(connect)

하이드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전라남도 화순은 과거 관광산업으로 성장한 지역이지만, 지금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조용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빠르게 발전한 도시는 아니지만, 그만큼 자연의 모습이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그만큼 자연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최고의 장점이지요. 동그리호수 공원처럼 자연이 가까이 있어 답답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마음을 차분히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친구나 동생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 고민을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멘토를 만났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자신을 더 믿게 되었고, 도전할 용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에게 꼭 추천해 주고 싶어요.

#확장(expansion)

3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__이 되고 싶다’를 완성해 본다면?

환경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가족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갈 터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며,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나요?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용기와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길 응원합니다.

10개월 동안 함께한 하이샘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하이샘, 10개월 동안 진심으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은 시기에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이샘 덕분에 저 자신을 조금 더 믿게 되었고, 도전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하이샘께서 저에게 주신 용기와 조언을 되풀이하면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위로와 용기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참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한 하이샘, 하이드들과 인생네컷 찰칵



진짜 나를 찾을 용기 얻었어요

삼척 김윤미 하이드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2년째 강.멘.장 활동 중인 삼척 지역 김윤미 하이드입니다.

#관계(relationship)

하이썸은 어떤 분인가요? 짝꿍 하이썸을 소개해주세요!

하이썸은 '완벽함 뒤에 숨겨진 친근함'이 매력적인 분입니다. 처음 뵈을 때는 빈틈없는 모습에 조금 긴장하기도 했지만, 아이돌 이야기를 나눌 때만큼은 천진난만한 소녀 같은 반전 매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잘 통하는 친한 간호학과 언니처럼 느껴집니다.

하이썸과 어떤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하나 있다면?

그동안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던 상황을 회피하며 지냈는데, 대학 면접 준비 과정에서 이를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정신적으로 쉽지 않았지만, 하이썸께서 약 한 달간 꾸준히 질의응답을 도와주며 방향을 잡아 주셨어요. 면접 대본을 준비하면서 제 경험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덕분에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진심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점이 큰 힘이 되었고, 그 경험은 지금까지도 큰 자신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이썸과 10개월 간 쌓은 관계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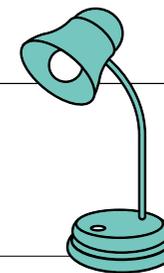
'나의 목소리를 내는 법'입니다. 평소 타인에게 맞춰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정작 제 주관을 뚜렷하게 펼치지 못하며 지냈는데 하이썸과 대화하며 논리 정연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주장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즐거움을 알게 됐어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고, 어쩌면 잃어버렸던 '진정한 나'를 다시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장(growth)

멘토링 시작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낮선 이들과 섞이는 것이 서툴러 자리를 피하곤 했는데, 지금의 저는 사람 사이의 연결이 주는 에너지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스팅캠프에서의 첫 만남이 기대 이상의 감동으로 다가오면서 생각의 틀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림스피치 활동을 거치며 동료들과 쌓인 유대감은 저에게 '소속감'이라는 든든한 뿌리를 만들어 줬고, 누군가 저를 반겨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마음은 "나도 타인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기피하던 제가, 이제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미완으로 시작해도 꾸준히 가다보면 결국 완주할 거라고 말하는 김윤미 하이드는 이제 그 어떤 것보다 든든한 힘, 용기를 얻었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소중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확장(expansion)

3년 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나는 ___이 되고 싶다'를 완성해 본다면?

어느 자리에서든 신뢰받고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태도와 책임감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나요?

지금처럼 진심 어린 교류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강.멘.장은 사람을 통해 배우고, 닮고 싶다는 동기를 얻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가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에게 전해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0개월 동안 함께한 하이썸에게 한 마디 남긴다면?

지현 하이썸! 멘토링 시간이 진정으로 유익하고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하이썸으로 강.멘.장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하이썸들에게서 정말 값진 멘토링을 받았기에 저 또한 제 하이드들에게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요.

하이드로 활동하며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에 드림스피치를 준비해 최우수상을 받고 해외탐방 기회를 얻었을 때입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하이썸, 하이드들과 함께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팀워크와 책임감을 깊이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해외탐방 후 유튜브 계정에 탐방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았을 때가 기억납니다. 제가 진심으로 노력했던 시간과 결과가 기록으로 남고, 많은 사람과 공유된다는 사실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라는 자부심을 처음으로 온전히 느낄 수 있었기에 더욱 기억에 남습니다.

#연결(connect)

하이드의 지역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의 자랑거리를 함께 소개해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바다가 정말 아름다워요.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빛깔로 빛나지만, 특히 한여름의 바다는 더욱 특별해요. 동해 그 어느



기대 이상의 감동을 느꼈던 부스팅캠프에서

바다에 가도 하늘이 새파랗게 빛나고, 해가 서서히 기울며 노을이 번지는 순간이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잠시 멈추고, 자연이 조용히 건네는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이 프로그램을 친구나 동생에게 추천하고 싶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업적 성장뿐만 아니라 정서적·인적 자산을 함께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첫 번째 이유는 정기적인 멘토링을 통해 하이썸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는 멘토링은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학업 지도, 진로 탐색, 고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정서적으로 큰 지지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 둘째, 부스팅캠프를 통해 여러 하이드와 하이썸을 만나며 폭넓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인연은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되며, 단순한 활동을 넘어



발대식에서 장학증서를 받는 윤미 하이드

우리, 서로의 동료가 되다



신찬주 하이쌤

신찬주 하이쌤+ 김태우·정지민·천희정 하이디

자기소개 후, 서로를 한 문장으로 소개해 볼까요?

찬주 안녕하세요. 저는 태백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교육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21살 신찬주입니다. 제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입니다. 저는 희정이를 '에너지이저'라고, 지민이를 '만능 엔터테이너'로, 태우를 '열정 대마왕'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희정 안녕하세요. 저는 태백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입학하는 20살 천희정입니다. 저는 스마트팜 구축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찬주쌤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자면 여기저기 참여하는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민 안녕하세요. 저는 태백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 정지민입니다. 저는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찬주쌤을 열정 있는 영어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우 안녕하세요. 저는 황지고등학교 2학년 김태우입니다. 제 꿈은 작가입니다. 저는 찬주쌤을 항상 활기차고,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허물없이 자신을 내보이는 과정을 통해 친구처럼 동료처럼 가까워진 신찬주 하이쌤 팀. 지역적 기반 아래 든든한 서로의 지원군이 된 이들은 이제 사람에게, 사회에 두려움 없이 다가간다.

우리 팀의 특징을 자랑해 주세요! 하이쌤과 하이디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장점이 있나요?

찬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아서 대화가 잘 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멘토-멘티 관계가 아닌 더 특별한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찬주 지민이랑 무인카페에서 수업을 했는데, 사람이 갑자기 많아져서 수업이 불가능해지자 카페를 나와 공원 구석에서 수업을 계속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이후로 지민이가 저에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었습니다.

희정 쇼펜하우어 책을 같이 읽을 때요. 태우랑 저, 찬주쌤 모두 그 책을 읽기 어려워해서 친밀감이 생긴 것 같아요.

지민 멘토링 수업 일정이 이래저래 바뀌는 것을 보면서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딱딱한 '학원'보단 편한 '공부방' 느낌이 들었거든요.

태우 기말고사 준비할 때 자습했던 순간입니다. 저도 찬주쌤도 시험을 준비했는데, 서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웃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학생도 다 똑같구나...' 하고요.

10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찬주 처음으로 대면 만남을 했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온라인으로만 마주하다가 처음으로

얼굴을 봤을 때 태우는 생각보다 컸고, 희정이는 생각보다 작았고, 지민이는 생각했던 그대로라서 신기했습니다. 또한 만나서 밥 먹고 수다를 떨며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이후의 멘토링의 질이 좋아져서 만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정, 지민 하이디 3명과 찬주쌤 총 4명에서 다같이 온라인으로 게임 멘토링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게임이 재밌었거든요(희정). 저는 기차에서 사람들 눈치 보며 멘토링에 참여한 거라 더 기억에

남아요(지민).

태우 처음으로 찬주쌤을 만났을 때입니다. 같이 치킨을 먹었는데, 매주 봐왔던 얼굴을 실제로 보니까 어색했고, 그래서 생각해 놓은 대화 주제를 하나도 꺼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폐광지역 기반 커뮤니티라는 지역적 공통점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줬나요?

찬주 좀 더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민이 많이 겹쳤기



하이쌤, 하이디 모두 함께 즐거웠던 오프라인 멘토링



김태우 하이드

때문에 나눌 얘기가 풍성했어요. 지역이 겹치는 인맥이 생겼으니 앞으로의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멘토링 주제는 무엇인가요?

찬주 이상형 월드컵, 그림 이어 그리기 등의 멘토링입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게임도 멘토링이 될 수 있구나'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희정 필사 멘토링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취미였는데 공유하고 같이 즐기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민 영문법 멘토링입니다. 1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느라 지치고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저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태우 필사 멘토링입니다. 내신 공부 때문에 작년에 책을 거의 못 읽었는데, 필사 멘토링으로 읽는 시집을 생키부로 쓸 수 있어서 좋았기 때문입니다.



정지민 하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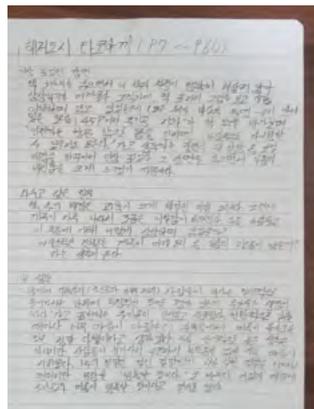
우리 팀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찬주 무게 잡지 않고 다가간 점 같아요. 제가 먼저 투명해야 애들도 투명하게 자신들 보여줄 것 같았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다가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희정 찬주샘의 노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태백 특성상 중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또래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새롭기도 했고요. 관계 형성을 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지민 서로 일정을 미루는 까닭을 솔직하게 말해줘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카톡 문체가 딱딱했는데 요즘에는 느낌표 넣고 웃음 넣는 등 샘의 말투에 동화되어서 조금 더 유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태우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만나기도 했고 선생님이 기분 좋게 말해주는 경향이 있어서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태우 하이드와 진행한 독서 멘토링



그림 이어 그리기 멘토링

멘토링 이후 말투가 착해졌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아무래도 찬주샘의 영향인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서로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찬주 세상을 사는 방법과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희정 소속감이 생겼고, 태백에 아는 사람이 더 생겼습니다.

지민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태우 직설적으로 말하는 말투에서 상대의 생각을 읽고 말하는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착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난다면 서로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건네고 싶나요?

찬주 어떻게 지냈어?



희정 하이드와 진행한 만다라트

희정 잘하고 있을 줄 알았어!

지민 오랜만이다.

태우 헉! (웃음) 뭐 하고 살아어?

서로에게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희정 네가 하는 건 다 잘될 거니까 어깨랑 허리 펴고 화이팅~

지민 항상 건강하고 돈 많이 벌길 바랍니다.

태우 앞으로 또 행복하길 바랄게요~

찬주 서울 한번 와! 밥 먹고 보드게임카페 가자.

우리는 서로의 []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찬주 우리는 서로의 [친구]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 같은 지역에서 자란 동네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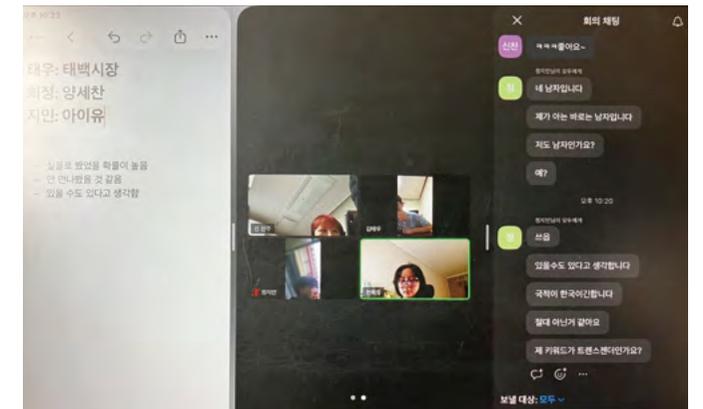


천희정 하이드

희정 우리는 서로의 [동료]다. 크게 힘든 일은 겪지 않았지만 힘든 일(?) 좋은 일 다 겪고 좋은 추억도 함께 쌓았기 때문입니다. "너 내 동료가 돼라."

지민 우리는 서로의 [거기서 거기]다! 힘들어하는 부분도 같고 재밌어 하는 부분도 같기 때문입니다.

태우 우리는 서로의 [선후배]다.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하며 친해진 찬주샘과 하이드들

4인 4색이 만든 아름다운 하모니



진준업 하이쌤

진준업 하이쌤+ 이세아·전승현·현진아 하이디

서로 다른 각자의 특징이 하나로 모여 큰 인연을 만든 진준업 하이쌤 팀. 각기 다른 개성이 모여 완벽해진 이들은 이제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하고 생각하는 사이가 됐다.

자기소개 후, 서로를 한 문장으로 소개해 볼까요?

준업 안녕하세요. 따뜻함이 기본 옵션인 문경 지역 하이쌤 진준업입니다. 현재 경북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이며, 하이디들과의 시간을 통해 대학 2학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꿈은 의사이고, 다양한 경험으로 식견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하이디들은 저에게 당근 같은 존재였어요. 일주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답니다.

세아 안녕하세요! 편안함이 기본 옵션인 문경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이세아 하이디입니다. 학업으로 지친 학생들의 체육으로 즐거움을 주기 위해 체육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이쌤은 수많은 별 사이에서 빛나고 있는 달 같은 분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도 큰 힘이 되어주고 언제나 밝게 웃으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달 같은 존재입니다.

진아 안녕하세요. 꾸준함이 기본 옵션인 보령에 살고 있는 하이디 현진아입니다. 현재 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공기업 입사가 목표입니다. 제 하이쌤은 말보다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승현 안녕하세요. 친근함이 기본 옵션인 문경 출신 하이디 전승현입니다! 이제 대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데,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개발자 꿈나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어요! 제 하이쌤은 매사에 열심인 너무나 존경스러운 인물이에요.

우리 팀의 특징을 자랑해 주세요! 하이쌤과 하이디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장점이 있나요?

준업 우리 팀의 특별한 점은, 세 명의 하이디가 각자 다른 방식으로 팀을 완성해줬다는 점입니다. 진아는 숙제를 늘 꼼꼼히 해오고 준비가 탄탄해서 매주 멘토링의 출발선이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줬고, 세아는 공감을 잘해주고 분위기를 편하게 잡아줬어요. 승현이는, 어느 순간부터 멘토링의 상대보다도 내가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됐고요. 말이 많지 않아도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실제로 둘이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즐거워서 좋은 동생이 하나 생겼어요.

세아 우리 팀의 가장 큰 장점은 편안한 소통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쌤이 항상 친구같이 편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밝고 웃음이 많은 분위기 덕분에 난감한 상황에서도 유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며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 함께할 때 부담이 없고 편안합니다.

진아 우리 팀의 특별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매주 과제를 해오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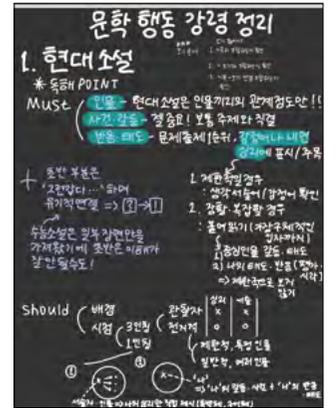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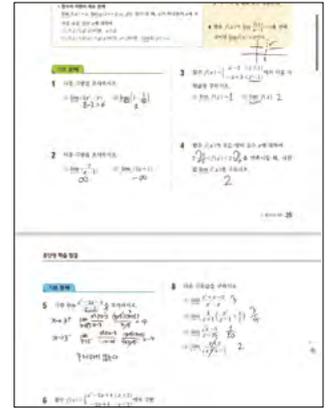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두고, 하이쌤은 그것에 대해 오답 풀이를 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정리해주면서 매주 같이 발전했어요. 결국 서로 맡은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저희 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승현 우리 팀은 소통이 너무 잘되었어요! 서로의 얘기를 항상 경청했고,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했어요. 결국에는 서로가 매주에 진심이고,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한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준업 하이디들과 매칭되었던 순간인 거 같아요! 그 주에 강연장에 함께해서 기본 상태로 나는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매칭 하이디 메일이 오고 친구들에게 한명 한명씩 카톡을 보내면서 앞으로의 여정에 설레하고 있던 게 아직도 떠오르네요.

세아 선생님과 함께 수학 문제를 풀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 틀릴까 봐 먼저 말도 잘하지 못하고 자신감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선생님은 빠르게 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천천히 풀어도 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답은 틀렸지만 선생님은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틀려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수학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작은 용기를 심어준 시간이었어요.



문학, 수학, 역사 등 다양하게 진행한 수업자료들

진아 선생님과 루미큐브를 했던 시간입니다. 게임을 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동안 한층 더 편안해지고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승현 하이섬과 처음 밥 먹었던 순간이 기억나요. 그때 하이섬이 따뜻하게 대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밥까지 사줘서 나도 나중에 꼭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폐광지역 기반 커뮤니티라는 지역적 공통점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줬나요?

준엽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초반에 서로를 이해하는 속도를 확실히 빠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대화를 진심 어리게 만들어줬고요. 덕분에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실제로 만날 기회도 더 많아서 같은 지역이라는 것에 더 감사해지는 순간이 많았답니다.

세아 초반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세아 하이디

진아 서로 사는 지역은 다르지만, 폐광지역이라는 공통점이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링 활동 시간이 편하고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승현 같은 지역이기에 공감대 형성이 더 쉬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털어놓을 수 있었고 조언도 받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답니다!

10개월 동안 어떤 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준엽 승현이와는 국어 모의고사 풀이를 수능 전까지 했습니다. 세아와는 수학 시험을 같이 준비했는데요! 세아가 수학을 공부한 적이 많이 없어서 개념부터 차근차근 기본 문제집과 교과서를 풀어나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진아와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도 지식이 많진 않아서 저도 함께 공부하는 식으로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나갔고요.



전승현 하이디, 진준엽 하이섬의 오프라인 멘토링

하이디들이 부스팅캠프에 함께하지 못한 시기에도 멘토링을 꾸준히 이어갔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이벤트’보다 매주의 약속을 지켜온 꾸준함이 우리 팀에게 어떤 의미였나요?

준엽 누구도 허투루 멘토링을 생각하지 않고 다들 진심이었던 게 꾸준함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제가 하이디들에게 고마웠던 점이고요!

세아 한 번의 큰 이벤트보다 반복되는 작은 만남이 더 큰 신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꾸준함은 ‘이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는 안정감을 주었고 저에게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진아 매주 하는 멘토링 활동이 단순히 공부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일상 대화도 하면서 편한 공부 시간이라 오히려 기다려지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쿨어택 이벤트에서 특강 진행하는 진준엽 하이섬

10개월 동안 서로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준엽 일단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다는 점이 행복했습니다. 멘토링을 매주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도 매주 만난다는 설렘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다더니 좋은 인연이 생겨서 정말 강연장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합니다.

세아 전에는 힘들면 쉽게 미루기도 했는데, 이제는 꾸준히 하는 습관이 조금씩 자리 잡았어요. 서로의 노력을 보며 자극을 받았고 작은 성취도 함께 나누다 보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완벽해진 건 아니지만 이전보다 책임감과 꾸준함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진아 멘토링을 하면서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 덕분에 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습관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승현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이 제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전에는 계획을 세워도 꾸준히 이행하지 못했는데, 형이 많이 격려해주고 옆에서 도와줘서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날 항상 응원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예요!

다시 만난다면 서로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건네고 싶나요?

준엽 저는 웃음과 울음이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말보다도 같이 밥이나 한 끼 하며 그동안의 못 나는 대화를 하고 싶어요.

세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진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만나다면 반가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진아 일단 너무 오랜만이고 반갑다고 전하고, 멘토링 활동 때 얘기하던 주시는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승현 형, 밥이나 한끼 먹자! 내가 살게!

서로에게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준엽 너희는 언제나 빛나고 참 마음이 깊은 친구들이었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때는 너희를 믿는 나를 믿어! 앞으로 뭐를 바라든 다 이루어질 거야. 좋은 일 있으면 언제나 연락하고!

세아 힘든 현실에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진아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고 본받고 싶다고 느꼈어요. 나중에 멋진 의사가 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승현 공부 가르쳐줘서 고마웠어. 앞으로도 형과 동생 사이로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

우리는 서로의 []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준엽 우리는 서로 [유튜브 영상 같은 존재]다. 매주 봐도 항상 즐거웠어요! 할 얘기가 맨날 넘쳐났거든요!

세아 우리는 서로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존재]다.

진아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다. 멘토링 활동을 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배우고, 그 과정에서 자극도 받아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승현 우리는 서로 [완벽한 파트너]였다. 각자의 목표를 이루도록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무한한 애정으로 서로의 정신적 지주가 되다



이정민 하이쌤

이정민 하이쌤+ 권경민·김민정·변효영 하이디

가장 흔들리는 시기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타인의 생각을 들으며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단단해지는 법을 배운 이정민 하이쌤 팀은 서로를 '무한한 애정'으로 바라보며, 서로의 '정신적 지주'가 됐다.

자기소개 후, 서로를 한 문장으로 소개해 볼까요?

정민 안녕하세요! 행복과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이쌤 이정민입니다. 저는 현재 관세직 공무원을 준비 중입니다. 전 하이디들이 예쁜 카페라고 생각합니다. 카페는 만남의 장소이자 심의 장소이기도 한데, 이렇듯 저에게 하이디들은 힐링의 존재이자, 함께 있으면 시간이 훌쩍 가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경민 안녕하세요. 저는 영월 지역에 살고 있는 권경민 하이디입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처음 함께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꿈꿔왔던 국어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3년이 지난 지금은 국어교육과에 진학해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고 후에 저녁에 주로 멘토링을 했는데, 할 때마다 친구같이 편하고, 재미있었어요!

민정 영월에서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김민정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고민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이입니다.

효영 안녕하세요 이제 막 고3이 된 영월 주천고등학교 3학년 변효영입니다. 저의 꿈은 소방관입니다.

우리 팀의 특징을 자랑해 주세요! 하이쌤과 하이디가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장점이 있나요?

정민 큰 장점은 해피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하이디들과 매주 만나 좋았던 것이나 즐거웠던 것, 자랑하고픈 이야기를 나누는데, 재잘재잘 하는 하이디의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져요. 즐거운 이야기를 하는 하이디들도 미소를 머금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웃음이 가득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민 모두가 하이쌤과 하이디와의 사이가 매우 친근할 것 같지만, 저희 팀은 조금 더 친한 것 같습니다. 요즘 힘들었던 것들, 알바를 하면서 만났던 어려움, 요즘 관심사, 그리고 함께 게임을 하면서 누구보다 친한 친구 같은 바이브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팀의 장점이자 강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정 우리 팀의 가장 큰 장점은 고민을 편하게 나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료식에서 동료 하이쌤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이정민 하이쌤

멘토링이 공부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라서 더 의미 있었습니다.

효영 하이쌤과 같이 있으면 뭔가 힘이 더 생기는 거 같고, 나보다 더 나의 장점을 찾고 알아주십니다. 친한 선배라고 생각이 들만큼 많이 든든하고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거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정민 첫 멘토링 하는 날이 기억에 남아요. 2025년에 작년부터 함께하는 하이디 한 명과, 새로운 하이디 두 명과 함께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작년에도 함께 한 하이디를 몇 개월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이디의 많은 성과에 괜스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했습니다. 2025년의 첫 만남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갈 사람들을 알게 된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경민 저는 개인적인 일로 상담을 받았던 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졸업 전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저녁, 독서 멘토링을 앞두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멘토링은 잠시 뒤로 하고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공감해 주셨던 하이쌤의 목소리와 얼굴이 기억에 남아요.

민정 하이쌤과 대면 멘토링으로 만나 러닝을 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녁에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치킨을 먹은 것이 정말 재밌었어요.

효영 수학 공부하는 순간이랑 힘든 얘기하는 순간과 마지막 수업 날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 쓰다 보니 생각했는데, 초복에 하이쌤이 건강을 챙기라고 배민쿠폰을 보내주셨던 게 떠오르네요.

폐광지역 기반 커뮤니티라는 지역적 공통점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 어떤 영향을 줬나요?

정민 학창시절 다양한 삶에 대한 욕심은 있었으나, 항상 가장 안전한 길로만 갔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큰 이유 중 하나는 도전을 함께 이야기할 멘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갈망은 성인이 된 저에게 여전히 채우고 싶은 욕구였고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며 수집한 양질의 정보를 하이디에게 전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경민 폐광지역 기반 커뮤니티라는 공통점이 없었다면, 그 지역 사람만이



권경민 하이디



김민정 하이디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걱정들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이 매우 작기에 생기는 학교에서의 문제점이나, 다른 지역과의 학습적 차이로 인한 입시 걱정을 경험한 정민 하이샘과 함께 입시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걱정 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정 같은 지역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멘토링이 더 기다리게 느껴진 것 같습니다.

독서, 비평, 입시 멘탈 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주제는 무엇이고, 그 시간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정민 독서 멘토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2년째 함께하고 있는 하이디와 독서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하이디의 성장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책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멘토링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작가의 의도나 해석의 방향에 대한 내용도 함께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경민 저는 개인적으로 박상영 작가의 '1차원이 되고 싶어'라는 책을 읽은 후에 서로의 감상을 공유하던 독서 멘토링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정민 하이샘께 추천한 책인데, 적지 않은 분량에도 끝까지 읽고 감상을 말해주셔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하이디인 저도 함께 멘토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민정 저는 독서나 글 읽기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이샘께서 칼럼 읽고 감상문 쓰기와 같은 활동을 시키셨고 멘토링 시간에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효영 나의 새로운 취미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지식과 생각하는 방식이 넓어져서 너무 좋았어요. 또한 같은 책을 하이샘과 같이 읽었기에 나의 생각과 다른 하이샘의 해석을 들으면서 '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구나. 새로운 방식이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영역이 넓어진 것 같아요.

10개월 동안 서로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정민 저는 하이디들에게 계속해서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려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장점과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생 시절에 장점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는데, 이게 결국 자존감과 연결된 질문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하이디들은 미처 눈치채지 못한 장점을 꼭 언급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경민 학습적인 성장,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지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민정 10개월 동안 하이샘은 제 이야기를 매순간 경청하고 공감해

주셨습니다. 별것 아닐지 몰라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배운 것 같습니다.

효영 자신감. 하이샘은 나에게 너무 큰 자신감과 자존감을 채워 주셨습니다. 하이샘의 응원과 위로 덕분에 많은 자신감들이 생겼고 이제는 못할 거 같다는 생각보다 '내가 노력하면 이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되었거든요.

다시 만난다면 서로에게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건네고 싶나요?

정민 '여러분 잘 지냈나요?'라는 한 마디를 꺼낼 것 같습니다. 많은 일을 겪은 어른으로 성장한 하이디들에게 공백의 시간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여전히 저는 하이디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기 때문입니다.

경민 "우리 맛난 거나 먹으면서 말할까요?" 정민 하이샘과는 대면 멘토링을 엄청나게 많이 진행했어요.



효영 하이디와 나는 꿈키움 멘토링 후기

항상 맛있는 것을 저에게 먹여 주시려고 애쓰신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이번에는 제가 맛난 걸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민정 제가 헤어 디자이너가 됐을 때, 하이샘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영 하이샘의 그때 그런 말들이 저를 이자리까지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이 자리보다 더 낮은 곳에서 인사를 드렸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경민 지금이 어떤 모습이던, 어떤 일을 하고 있던 저는 정민 하이샘의 편입니다!! 이젠 점점 볼 시간이 없어지겠지만, 전 언제 어디서든 정민 하이샘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

민정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바라며,

멘토링은 끝났지만 인연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효영 하이디가 아닌 '변효영'이라는 사람으로 하이샘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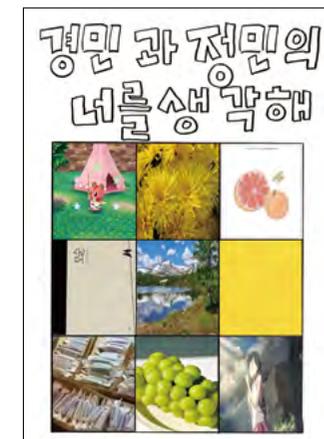
우리는 서로의 []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정민 우리는 서로의 [영양제]다. 사실 영양제는 굳이 챙겨먹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나, 영양제를 챙겨먹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듯 서로가 존재하기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윤택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에 영양제라고 적었습니다.

경민 우리는 서로의 [일기장]이다. 하이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마치 일기장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평상시에 가족에게, 그리고 때로는 친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걱정들과 불안을 정민 하이샘과 함께 하는 멘토링 시간에 많이 털어놓았고, 좋은 답과 위안을 얻었거든요.

민정 우리는 서로의 [응원자]다. 선택을 응원하며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효영 우리는 서로의 [밴드]다. 처음 수업 날 서로의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서로의 이름이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이샘은 저에게, 저는 하이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의지가 많이 되고 또 힘이 돼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밴드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하이디와 진행한 '너를 생각해' 멘토링

어디서든 우리답게 빛나는 법을 배우다



김경은 하이쌤

자매 하이쌤

김경은 하이쌤+ 김보은 하이쌤

자매 하이쌤으로 활약한 김경은-김보은 하이쌤은 10개월간 서로를 의지하고 때론 자극받으며 더 좋은 멘토링을 고민했다. 이제 이들은 이 멘토링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더 나은 사회인이 될 준비를 마쳤다.



김보은 하이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경은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 2년간 하이쌤으로 활동한 화순 지역 하이쌤 김경은입니다. 2년 동안 하이디들의 곁에서 함께 웃고 고민하며 저 역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한 지금은 병원 입사를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은 2023년, 2025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 하이쌤으로 활동한 화순 지역 하이쌤 김보은입니다. 특히 올해는 가족과 함께 이 활동을 이어가며 '성장'의 의미를 더 깊이 체감했고, 저에게도 오래 남을 한 해가 되었습니다.



경은 하이쌤이 예린 하이디와 진행한 모루인형 만들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은 혼자였다면 떠올리지 못했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하이디가 수업에 다소 해이해졌던 시기에 저는 '취미 공유하기' 활동을 통해 아이의 관심사에서 대화를 시작해보았고,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경은이도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 멘토링에 비슷한 방식을 반영해보겠다고 하며 서로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관계

두 분 모두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서로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나요?

경은 언니가 집에서 멘토링을 준비하고 활동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싶다는 작은 꿈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에 그 마음을 직접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특히 '나눔의 선순환'이라는 문구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그 선순환의 한 부분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보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활동하며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하이디를 돕는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하이쌤들과 소통하며 서로 배우는 자리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성장

어떤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경은 멘토링 초반에 항상 일과나 일주일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일, 요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어땠냐고 묻는 방식은 부끄럼이 많은 하이디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했고, 대화를 넓게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방법이 '사진으로 이야기 하기'였습니다. 음식이나 풍경, 혹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장면 사진을 한 장 가져와 그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요. 사진을 매개로 하니 훨씬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더라고요. "이건 제가 요즘 빠진 디저트예요", "이 풍경은 그날 기분이 좋아서 찍었어요" 하면서요. 사소한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의 개인적인 취향과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던 가치관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간호학과 특성상 아르바이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장학금 지원이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경은이에게도 멘토링을 추천하게 되었고, 2025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함께 참여해보고 싶어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디들의 연령대가 비슷해 자료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활동 중 힘들었던 순간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자매라서 가능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 하이디들과 유대감을 쌓는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참여율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때면 멘토링이 지루했던 건 아닐까? 하고요. 그 때마다 서로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며 격려했습니다. 자매였기에 더 솔직하고 편하게, 때로는 누구보다

보은 특히 진로 멘토링에 많은 비중을 뒀는데, 주경 하이디와의 마지막 멘토링 이후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10개월 간 진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눈 하이디인데, 처음에는 응급구조학과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점점 간호학과에도 관심을 보이며 여러 번 고민을 얘기했어요. 저는 특정 선택을 권하기보다, 두 전공의 차이와 현실적인 부분을 함께 비교하며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왔고요. 마지막 멘토링이 끝난 늦은 밤 ‘하이쌤, 저 간호학과를 진지하게 목표로 해보려고요. 하이쌤이 제 멘토가 되어줘서 저는 정말 행운이에요’라는 주경 하이디의 메시지가 왔어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보다, 그 긴 시간 동안의 대화와 고민이 진심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두 분 모두 번갈아 ‘최우수 하이쌤’으로 선정되었는데, 서로의 활동을 지켜보며 어떤 자극이나 동기부여를 받았나요?

경은 시험기간이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멘토링 시간을 먼저 비워두는 모습을 보며 많이 배웠습니다. 피곤해도 준비를 놓치지 않고, 작은 약속 하나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말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자연스럽게 나도 끝까지 해보자는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보은 주말마다 멘토링을 준비하고, 전날까지 활동을 고민하며 진심을 쏟는 모습을 보면서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선정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던 모습을 보며 저도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멋진 멘토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는 단순히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책임감 있게 멘토링을 준비하게 됐죠.

두 분 모두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됐는데, 하이쌤 활동 경험이 간호사로서의 태도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나요?

경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이쌤으로 활동하며 배운 경청과 책임감, 그리고 꾸준함은 앞으로 간호 현장에서 사람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간호사가 되어서도 후배들에게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알람나이 활동에도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은 하이쌤 활동은 저에게 ‘사람을 이해하는 방식’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역할’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멘토링을 하며 누군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멘토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사회간호사라는 꿈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고요. 병원이라는 공간을 넘어, 예방과 교육, 상담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결국 하이쌤 활동은 저에게 ‘어떻게



수료식에서 활동 소감을 발표 중인 김보은 하이쌤



패들렛에 기록한 온라인 멘토링 후기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겨준 시간이었고, 이는 앞으로 간호사로서 환자를 대할 때도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결
지역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있었나요?

경은 저희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저 언니들도 저 자리에서 시작했구나”하고 느껴 주길 바랐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보은 “누구나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특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자라고 같은 고민을 하던 평범한 선배도 꾸준히 도전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확장
서로에게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경은 앞으로 타지에서 간호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지금처럼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으로 서로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자.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존재로 남았으면 좋겠어. 2년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보은 올해는 우리에게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특별한 출발점인 것 같아. 지금까지 그래왔듯 서로의 가장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주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단단하게 성장해가자. 어디에 있는 우리는 결국 서로의 힘이라는 걸 잊지 말고, 지금처럼 우리답게 빛나자.

우리는 서로의 []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경은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다. 진심 어린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거든요.



보은 하이쌤이 하이디와 가까워지기 위해 진행한 취미 공유하기 활동

보은 우리는 서로의 [가장 단단한 응원]이다. 같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고민과 노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응원이 있습니다. 잘될 때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흔들릴 때는 조용히 옆을 지켜주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단단한 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경은 함께 성장하는 알람나이로서 남고 싶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응원과 기회를 다시 후배들에게 나누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지역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되고 싶습니다.

보은 알람나이로서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하는 하이쌤이 되고 싶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받은 따뜻함과 배움을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하며, 이 연결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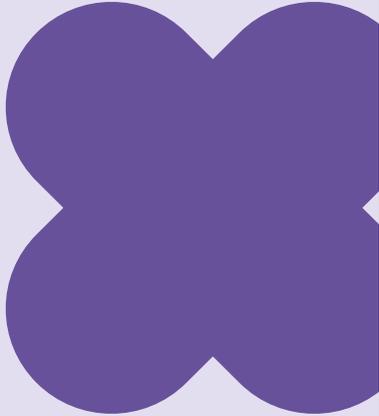
서로의,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찾다



이권우 하이쌤



이예나 하이쌤



이권우 하이쌤+ 이예나 하이쌤

남매 사이인 이권우·이예나 하이쌤은 티격태격 서로의 노하우를 주고받으며 즐거운 멘토링 시간을 보냈다. 교육 전공자인 남매는 경험과 지식을 살려 이제 더 큰 선순환에 참여하려 한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권우 안녕하세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3년째 참여하고 있는 이권우입니다.

예나 안녕하세요. 어엿한 2년 차, 삼척 출신 하이쌤 이예나입니다.

#관계

두 분 모두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서로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나요?

권우 제가 1학년 때 먼저 멘토링에 참여했고, 군 복무를 마친 뒤 2학년으로 복학할 때 동생도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같이 지원하게 됐어요. 저는 사범대에, 동생은 교대에 재학 중이라 하이디들과 직접 소통하고 지도해보는 경험이 의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예나 꿈에 그리던 교대생이 된 후 초등교사라는 진로를 가진 저에게 유익한 멘토링 장학 사업이 있다며 오빠가 처음 소개해 주었습니다. 같은 폐광 지역 출신의 후배를 하이디로 만나면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에게 딱 맞는 멘토링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중 힘들었던 순간은 어떻게 해결했나요? 남매라서 가능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권우 저희 둘 다 수업에 잘 들어오지 않는 하이디가 한 명씩 있었는데, 동생이 특히 그 부분 때문에 집에서 고민이 많더라고요. 저는 먼저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예나 1년 차 하이쌤 시절엔 초등교육 전공이긴 하지만 여러 명의 하이디와 일대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매 수업 긴장하며 뚝뚝거리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그때 오빠가 교육 전공자로서는 '네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조화, 도식화해서 정리하면 수업이 훨씬 수월할 거다'라는 조언을, 그리고 오빠로서는 '나한테 하듯이 긴장 풀고 자신감 있게 하라는 현실적인 응원을 해줬어요. 덕분에 긴장을 풀고 멘토링 방식을 성찰하며 다방면으로 성장한 하이쌤이 된 것 같습니다!



예나 하이쌤의 수업 자료



수료식에 함께 참여해 사진 남기기



권우 하이쌤의 수업 자료



멘토링 중인 이예나 하이샘과 하이디들

#성장

어떤 방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권우 저는 학생의 관심사에 주목해서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특히 축구를 좋아하는 하이디와 이탈리아 축구팀 위치와 위치에 담긴 의미를 이탈리아의 역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재밌게 수업했습니다.

예나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하이디들도 각자의 개성과 멘토링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거를 고려해 저는 3명의 하이디와 학습-정서-진로 멘토링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정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하이디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기분 좋았던 일 3가지를 공유하며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이디가 멘토링 시간이 아닐 때도 카톡으로 기분 좋은 노래 가사를 보내거나, 본인이 그린 귀여운 그림을 보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문방구에서 유령 가면을

사왔더니 셀카를 보내줬는데 정말 귀엽더라고요.

활동 중 서로를 새롭게 보게 된 순간이 있나요?

권우 동생이 집에서 항상 막내라 누구를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걸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해본 적 없는 데, 막상 학생들과 정말 잘 소통하고 공감하는 걸 보며 동생의 또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나 한번은 집에서 오빠의 수업을 엿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빠의 선생님 말투(?)를 태어나서 처음 들은 그날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대화할 때에는 사뭇 다른 진지한 오빠의 모습에 '오빠에게도 선생님 모드가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는 분야의 지식을 막힘없이 술술 설명하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오빠를 새롭게 보게 됐고, 그런 능력이 조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매년 수료식에 함께 참석했는데, 그 시간은 두 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권우 평소에는 티격태격하는 시간이 많지만, 수료식이나 행사에 함께 참여할 때만큼은 서로가 가장 든든한 존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나 수료식은 단순한 활동의 끝이 아니라 지난 10개월간의 열정이 맺은 결실을 가지적으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달려온 여정에 의미 있는 마침표를 찍는 순간인 동시에, 멘토링을 통해 얻은 배움과 에너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작을 희망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연결

같은 지역 기반 커뮤니티 안에서 남매가 함께 활동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나요?

권우 생각보다 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활동을 통해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고 멘토링을 통해 지역 안에서 함께 추억을 쌓았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게 남아 있습니다!

예나 우리 지역을 가족처럼 더 사랑하고 더 끈끈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매개체가 됐다고 생각해요. 성인이 돼서 타지 생활을 하며 고향과도, 가족과도 물리적인 거리가 생겨 아쉽고 슬픈 마음이 컸었는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활동을 통해 오빠와도 더 유대감이 생기고, (오빠가 좋든 싫든) 서로 교류할 일이 많이 생겨 좋은 것 같아요.

지역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이 있었나요?

권우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선택지와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공부나 배움이 결국은 점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나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신에 대한 믿음과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있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오빠가 교육 전공자로서 꿈을 키워 가는 모습이 하이디에게 실질적인 자신감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확장

서로에게 짧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권우 1년 동안 고생 많았다.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이들 챙기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고, 내년에도 활동하게 된다면 초심 잃지 말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

예나 항상 무엇이든 나보다 먼저 도전하고 이뤄내는 오빠를 보며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아. 내년엔 남매 하이샘으로 다시 만난다면 그뻘 내가 더 잘할 거니까 각오해, 같이 힘내자!

우리는 서로의 []다. 빈칸을 채워주세요!

권우 서로의 [안전지대]다. 평소에는 각자의 생활을 하느라 큰 소통이 많지는 않지만, 공식 행사나 중요한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서로를 찾게 됩니다.

예나 서로의 [거울]이다. 성격은 너무 다르지만, 통하는 모습도 있어서 서로를 비춰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장하고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연결되고 싶나요?

권우 이제 올해 4학년이 되어서 어쩌면 하이디들과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 번 더 하이샘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세 번의 활동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완성도 높은 멘토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나 '노하우와 여유를 겸비한 진정한 멘토'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전공자로 노하우로, 하이디들이 언제든지 기댈 수 있고 실질적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선생님' 같은 든든한 하이샘의 모습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멘토링 중인 이권우 하이샘과 하이디

High Program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수요자 중심의 성장 프로그램을 설계해
장학생들이 스스로, 또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0개월 동안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서 성장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부스팅캠프
BOOST UP! TOGETHER

하 이 운동 회



아이 운동회
응원하다
목 쉬었상

아이 운동회
하나로
즐거움 뽐냈상

아이 운동회
하이다
MVP

아이 운동회
하이섬
MVP

아이 운동회
이 구역
최강팀

아이 운동회
3등도
대단했상

아이 운동회
아깝게
2등상

2025 활동 모아보기

사진으로 보는 우리의 10개월



1 발대식 및 사전교육
2025. 6. 14.(토)
서울 코엑스159 스튜디오



2 부스팅캠프
2025. 8. 6.(수) ~ 8. 8.(금)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3 사회인 멘토링
2025년 6월 ~ 2026년 2월
총 22회 진행



4 꿈키움 멘토링
2025년 9월 ~ 12월
총 14회 진행



5 입시 서포터즈
2025년 7월 ~ 2026년 2월
8개월 진행



6 수료식
2026. 2. 10.(화)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브릭스



7 해외탐방
2026. 3. 14.(토) ~ 3. 20.(금)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 에센, 하이델베르크 등



발대식 및 사전교육 단체사진

하이샘과 하이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시작

일자 2025. 6. 14.(토)
장소 서울 코엑스 스튜디오159
참여 인원 총 405명
내용
 1부 - 발대식
 웰컴영상, 격려사, 장학증서 수여,
 활동 포부 발표
 2부 - 사전교육
 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사전교육1&2

하이샘과 하이드가 함께 만드는 10개월 간의 여정의 첫 시작을 위한 하루! 올해는 특별히 발대식과 사전교육을 같이해서 더욱 축하의 의미가 깊었어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의 연혁과 활동을 알아보는 웰컴영상, 하이드와 하이샘의 활동 포부를 듣는 발표, 장학생 활동의 길라잡이를 위한 오리엔테이션, 장학생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교육까지! 사전교육은 시간 관리 방법, 멘토+멘티 관계 형성법으로, 장학생들에게 중요한 필수 역량에 관한 것이었어요. 멘토, 멘티로서 각각 마인드셋을 하면서 앞으로의 나날을 그려보는 시간이었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며 화면을 가득 채운 하이샘, 하이드의 모습을 보니 괜히 더욱 반가운 마음이었어요. 처음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노력하는 하이샘, 하이드가 되길 바랍니다.



활동 포부를 발표하는 김사론 하이드



온라인 멘토링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 퀴즈를 맞추는 김준길 하이샘

후기

하이샘

- 대학생이라 할 일이 많은데 사전교육에서 강사님이 시간 관리법을 알려주셔서 저만의 시간표를 짜보며 시간을 잘 관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하이드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클래스 카드, 패들렛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참고할 수 있었고, 하이드에게는 구체적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이드

- 발대식을 참여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특히 하이샘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더 성장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 생각보다 많은 하이드들과 하이샘이 있었고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이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장학사업임을 알게 되었다.



스케치 영상 보러 가기



장학증서를 받은 민경윤, 김현 하이샘, 김윤미, 박진규 하이드

만족도

발대식

발대식을 통해 앞으로의 장학생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다.

발대식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4.6



4.6



사전교육

강의를 통해 효과적인 시간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강의를 통해 멘토와 멘티의 관계 형성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4.6



4.6





장학생 역량강화교육에서 '나의 미래설계'에 대해 발표하는 김민철 하이샘



조별 릴스 챌린지를 위해 열심히 촬영 중인 하이샘과 하이디

하이샘, 하이디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2박 3일

기간 2025. 8. 6.(수) ~ 8. 8.(금)
장소 강원랜드 하이원 그랜드호텔
참여 인원 총 115명
내용
 1일 차
 장학생 역량강화교육 및 네트워킹
 2일 차
 강원랜드(하이원 리조트) 탐방 및 팀빌딩 프로그램(릴스 챌린지, 하이운동회)
 3일 차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링 및 귀가

부스팅캠프는 10개월 간의 장학생 활동의 중간 지점에서 하이샘과 하이디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여정을 다시 그려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화면 너머로 만나던 시간을 넘어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관계를 더욱 깊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장학생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싶은지'를 차분히 돌아보았습니다. 조별 활동을 하다 보니 어색함은 금세 웃음으로 바뀌었고, 저녁 식사 이후 커피박으로 제작한 하이하우 키링과 함께한 '하이!부루마블', 강연장 모의고사 프로그램은 즐거움 속에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어요.

둘째 날에는 화창한 날씨 속에 운탄고도 케이블카를 타고 하이원 탐에 올라 탁 트인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어진 조별 릴스 챌린지 시간에는 12개의 팀이 각기 다른 개성과 아이디어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했는데요, 협업과 배려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 진행된 신체활동 프로그램(하이운동회)에서는 경쟁보다는 응원이 더 크게 울려 퍼졌고, 함께 뛰고 웃으며 한층 가까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답니다.

셋째 날에는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 3인과 함께하는 멘토링 컨퍼런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멘토님들의 강원랜드 입사 전의 고민과 도전, 그리고 현재의 자리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들으며 진로는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과정임을 느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하이샘과 하이디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며 자신의 미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어요. 2박 3일의 부스팅캠프가 하이샘과 하이디 여러분에게 남은 멘토링 여정을 더욱 힘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길 바랍니다!



하이운동회에서 게임하는 하이샘, 하이디

후기

하이샘

● 멘토링 소재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하이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다양한 소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이디들과 멘토링과 관련해 이야기 하며 어떤 방향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는지 가까이에서 그 목소릴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하이디들과 지역이 멀어서 오프라인으로 만나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만나니까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아쉬웠습니다.

하이디

● 부스팅캠프를 통해 친화력과 인내심을 키울 수 있었다. 단시간에 많은 사람과 친해져서 헤어질 때 아쉬움이 컸던 것 같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캠프를 또 한다면 다시 한번 꼭 참여하고 싶다.

● 팀원들과 더욱 친해지고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점 같았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속한 내가 자랑스럽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겨서 기분이 좋다.



장학생 네트워킹 시간에 만든 나만의 커피박 하이하우 키링



하이원 탐에 올라 조별로 남긴 기념사진



임직원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스케치 영상 보러 가기



릴스 챌린지 보러 가기

만족도

하이운동회의 진행 경기를 통해 단합력을 기를 수 있었다.

강원랜드 탐방을 통해 강원랜드 공간을 경험하며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4.8



4.7



하이부루마블을 통해 같은 조의 하이샘, 하이디와 더가까워질 수 있었다.

장학생 역량강화교육의 전반적인 진행방식 및 내용이 만족스러웠다.

4.7



4.5



조별 릴스 제작 시 조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강원랜드 임직원 멘토링이 나의 진로 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4.5



4.5



하이쌤, 더 넓은 세상을 만나다

기간 2025년 6월 ~ 2026년 2월
진행 횟수 총 22회

막연한 진로 설계, 그리고 바쁜 하루 속에서 삶의 균형을 찾는 일 등 혼자서는 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함께 고민해 줄 어른을 곁에 두었습니다.

2025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22회. 현직 교사, IT 종사자, 금융권 실무자, 창업가 등 각자의 자리에서 커리어를 그리고 있는 사회인 멘토들이 하이쌤과 만났습니다! 멘토님들은 취업 준비 전략과 이직과 도전의 경험, 그리고 실패의 순간까지 솔직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공의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이쌤의 진로 설계에 다양한 방향성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멘토링은 단순히 직무를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서 시작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을까?”라는 깊은 고민으로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이쌤들은 사회인 멘토링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지’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2번의 만남이 각자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이쌤들이 또 다른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건네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시는 빠질 수 없지!> with 이주영 멘토님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송국 PD 스토리> with 이동원 멘토님

프로그램별 후기



라이프

9/28 (일) 박선유 멘토님
〈어느 MZ 공무원의 워크&라이프 밸런스〉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일에서 어떤 가치를 이루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하이쌤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분야에 관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라이프

10/28 (화) 이경민 멘토님
〈하이쌤 출신이 말하는, 취미로 돈 버는 방법〉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멘토님의 경험담을 들으며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멘토링을 통해 저도 제 전공과 취미를 연결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겠다는 동기 부여를 얻었습니다.”



커리어

6/30 (월) 유종원 멘토님
〈중등 영어 교사의 청소년 멘토링 TIP 전수〉

“소그룹 멘토링을 통해 교사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의 심리와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관계 안에서 성장과 변화를 끌어내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커리어

8/29 (금) 유주환 멘토님
〈8년차 직장인이 바라본 현명한 진로/직무 설계〉

“남은 대학 생활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고, 강점과 약점, 좋아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을 찾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고, 직접 부딪쳐보는 것 자체가 큰 자산이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커리어

12/22 (월) 이주영 멘토님
〈2026년에도 AI는 빠질 수 없지!〉

“AI 기술 자체보다 인문학적이고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눠 삶의 방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참여한 다른 하이쌤들의 다양한 고민과 질문을 공유하면서 시야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만족도

참여한 사회인 멘토링의 전반적인 내용 및 진행방식이 만족스러웠다.

4.6



사회인 멘토링과 동료 하이쌤과의 소통을 통해 경험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게 되었다.

4.5



사회인 멘토링이 나의 진로 및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었다.

4.5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4개월 14회의 기록

기간 2025년 9월 ~ 12월 (4개월)
 진행 횟수 총 14회
 내용
 꿈키움 멘토링
 대학 학과 소개 및 대학 생활 노하우
 제공 멘토링
 진로 특강
 대학 입시 및 다양한 진로 정보 제공
 특강

전국 석탄산업전환지역 청소년의 진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하이셀과
 현직 사회인 멘토가 모였습니다!
 꿈키움 멘토링은 하이셀이 전공과 대학 생활의 경험을, 현직 멘토가 생생한 직업
 이야기를 전해주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만의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14회. 4개월간 이어진 만남 속에서 청소년들은
 막연했던 꿈을 조금 더 구체적인 진로로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11회의
 학과 멘토링과 3회의 진로 특강을 통해 사범대 진학부터 예술·디자인, 경찰, 경영
 등 다양한 전공과 직업 세계를 만나보았습니다.
 같은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중·고교 시절을 보낸 하이셀들의 솔직한 대학 생활
 이야기, 현직 멘토들의 생생한 경험담은 청소년들에게 교과서 밖의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전공의 이름을 뚜렷이 알게 된 날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막연했던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청소년에게 각자의 꿈을 키워가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학과 및 직무 키워드

- 미술사학과 컴퓨터학과
- 경영학과 약학과 의예과
- 지구환경과학과 문예창작과
- 고분자공학과 광고홍보학과
- 국어국문학부(한국어교육학과)
- 사회학과 동물자원과학과
- 경찰행정학과 상담심리학과
- 통합디자인학과 작업치료학과
- 화학과 경찰 AI 연구
- 사회교육과 음향제작과
- 일반사회교육과 교육학과
- 입시 컨설턴트 사회복지학부

진행 멘토링

- 9/23(화) 교사가 되고 싶은 너에게: 사범대 진학부터 입시 꿀팁까지!
- 9/24(수)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언어! 예술 그리고 디자인
- 9/30(화) 정의를 지키는 사람, 경찰의 길
- 10/28(화) 컴퓨터가 계산한 미래, 경영이 그려낸 길
- 10/30(목) 의약학 진로 A to Z
- 11/5(수) AI란 무엇일까? AI 연구원이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
- 11/13(목) 생명과 지구를 잇다: 자원과학
- 11/14(금) 작가, 어떻게 글을 쓸까? 문예창작과에 대해서
- 11/21(금) 모든 과학의 중심, 화학! 세상의 물음에 답을 하는 여정
- 11/25(화) 세상과 소통하는 세 전공 이야기
- 12/6(토) 범죄의 심리를 파헤치다: 경찰행정과 상담심리의 교차점
- 12/9(화) K-컬처 시대,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법: 언어로 세계와 연결되는 한국어교육 이야기!
- 12/17(수) 폐광지역 청소년 꿈키움 고교, 대학 입시 컨설팅
- 12/26(금) 삶을 회복하는 작업치료,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

후기



학과

세상과 통하는 또 다른 언어! 예술 그리고 디자인
 (9/24(수) 19:00~20:30)
 미술에 관심이 있는 나에게는 멘토쌤의 생생한 대학
 이야기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질문 하나하나에 대충
 넘어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 해주신 게 가장 좋았다.



학과

컴퓨터가 계산한 미래, 경영이 그려낸 길
 (10/28(화) 19:00~20:30)
 경제와 경영학과라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전공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꿈키움 멘토링 수업을 듣다 보니 어렵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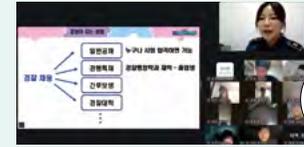
학과

생명과 지구를 잇다: 자원과학
 (11/13(목) 19:00~20:30)
 현재 학과에 다니고 계신 하이셀의 경험담을 들으니 더
 와닿았고, 인터넷에서도 찾을 수 없는 내용까지 들을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다.



학과

세상과 소통하는 세 전공 이야기
 (11/25(화) 19:00~20:30)
 사회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는데 멘토링을 통해 관련
 학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진로 특강

정의를 지키는 사람, 경찰의 길
 (9/30(화) 19:00~20:00)
 경찰이란 직업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경찰관의 업무 범위, 경찰관이 되는 방법 등
 궁금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서 좋았다.



진로 특강

폐광지역 청소년 꿈키움 고교, 대학 입시 컨설팅
 (12/17(수) 19:00~21:00)
 입시 관련 정보나 생기부 관련 여러 활동의 예시를
 들어주는 등 고등학교 입학 후 학교 생활에 큰 도움을 주는
 정보들까지 알 수 있어 너무나 유익했습니다.

만족도

꿈키움 멘토링·진로 특강 참여를 통해
 진로 및 학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었다.

꿈키움 멘토링·진로 특강을 통해 꿈을
 탐색하는 즐거운 경험과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꿈키움 멘토링·진로 특강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와 꿈에 대한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4.5



4.5



4.5



대학교로 이끌어주는 하이쌤, 배우며 따라가는 하이디

활동 기간 2025년 7월 ~ 2026년 2월
(8개월)

- 내용**
집중 케어
 생기부 작성 노하우 전달, 수시 원서 접수, 모의면접 등
대학 입시 특강
 폐광지역 맞춤형 수시 전형 소개, 모의고사 공부법 안내, 정시 준비 캠퍼스 투어, 폐광지역 스쿨어택 이벤트
이벤트
 대학 입시 노하우 전달, 대학 생활 소개



고려대 캠퍼스 투어에서 입시 특강을 진행하는 진준엽 하이쌤

'하이UP'은 폐광지역 청소년에게 대학 입시 정보와 경험을 나누주는 대학생 서포터즈예요. 7명의 하이쌤으로 이뤄진 하이UP은 폐광지역 선배로서 후배 멘티의 성장을 이끌어 준다는 뜻이 있어요. '하이클래스'는 하이UP의 집중 케어를 통해 성장할 대학교 신입생이자 미래의 하이쌤을 꿈꾸는 후배 14명이에요. 폐광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처음 만들어진 하이UP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후배들을 돕기 위해 힘썼어요.

* 하이UP 태백 최예나, 영월 김민서, 문경 박민준·윤다해·진준엽, 화순 이진서·최윤경 하이쌤



고려대 캠퍼스 투어 단체사진

폐광지역 후배와의 만남,
집중 케어

하이클래스를 만나 매주 온라인으로 생기부, 모의고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조언해줬어요. 하이UP은 입시 노하우를 전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롭게 찾아보며 담당 입시 코치가 되었어요!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수능 대비,
정시 특강

오답 노트와 실전 모의고사를 꾸준히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능은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조언해 줬답니다.

우리들의 활동 발자취

7월

입시 서포터즈로서의 첫 시작, **면접**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한 입시 서포터즈! 서류, 면접을 통해 총 7명의 하이UP이 선발되었어요.

8월

폐광지역 후배와의 만남,
집중 케어

하이클래스를 만나 매주 온라인으로 생기부, 모의고사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조언해줬어요. 하이UP은 입시 노하우를 전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롭게 찾아보며 담당 입시 코치가 되었어요!

9월

6개의 수시 원서 활용법 안내, **수시 특강**
 폐광지역 맞춤형 수시 전형을 안내하고 원서 작성 방법을 알려줬어요. 생기부를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할지 알려주며 길라잡이가 되어줬어요.

10월

꾸준함으로 승부하는 수능 대비,
정시 특강

오답 노트와 실전 모의고사를 꾸준히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수능은 끝까지 열심히 하라고 조언해 줬답니다.

하이UP 후기

김민서

폐광지역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강원랜드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

박민준

저의 조언이 누군가의 꿈에 이정표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식 나눔의 가치와 성취감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준엽

내가 열정과 에너지를 받았다. 선한 하이디, 하이쌤과의 만남은 내게 여운을 남겨줘 힘을 실어줬다.

윤다해

하이UP 활동을 하며 다양한 간접 경험을 했다. 동료들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경험해보지 않은 분야나 사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최윤경

스쿨어택과 캠퍼스 투어 등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재미있었고 더 많은 하이디들과 동료 하이쌤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최예나

학생의 생기부 및 수능 준비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멘티의 개선점을 정리, 공감과 조언을 전할 수 있었다.

이진서

스쿨어택, 캠퍼스 투어 등을 진행하며 하이디, 하이쌤을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워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들의 활동을 돌아보는 시간,
간담회

하이UP은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봤어요. 남은 활동을 어떻게 준비할지 함께 고민했어요!

알찬 겨울방학을 위한,
연세대 캠퍼스 투어

예비 고1~고3에게 중요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노하우를 전하고, 연세대 곳곳을 구경하며 직접 연세대 역사를 설명해줬어요.

11월

일일 대학생이 된 날,
고려대 캠퍼스 투어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하이UP이 진행하는 오프라인 투어로, 대학 입시 멘토링으로 하이디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캠퍼스 건물을 돌아보며 하이디에게 동기를 부여했어요!

12월

폐광지역 고등학교로 찾아간,
스쿨어택 이벤트
 폐광지역 고3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간식차와 함께 직접 찾아가 하이UP! 5개의 고등학교에서 이벤트와 대학 생활 특강을 진행하며 예비 하이쌤을 만났어요.

1월

알찬 겨울방학을 위한,
연세대 캠퍼스 투어

예비 고1~고3에게 중요한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노하우를 전하고, 연세대 곳곳을 구경하며 직접 연세대 역사를 설명해줬어요.

2월

우리들의 활동 마무리,
성과 공유회
 하이UP과 하이클래스의 활동을 마무리 짓는 시간. 그동안 어떤 활동을 통해 얼마큼 성장했는지 되돌아보았어요. 서로 앞으로의 앞날을 축하해주며, 내일의 성장을 응원했습니다!



스케치 영상 보러 가기



릴스 보러 가기



폐광지역 스쿨어택 이벤트에서 진행한 대학생활 특강



수료식 현장에서 찍은 단체사진

하이샘과 하이드가 함께여서 더욱 빛났던 10개월의 여정

일자 2026. 2. 10.(화)

장소 헤이그라운드 성수시작점

BRICKS

내용

1부 수료식

활동 회고 영상, 격려사,

수료증&표창장 수여, 활동 소감 발표

2부 하이 프롬 데이

알럼나이 제도 소개,

<YEAR BOOK> 만들기, 럭키 드로우

하이샘, 하이드, 알럼나이까지 폐광지역 커뮤니티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여정을 축하하는 수료식!

10개월 동안 어떤 활동으로 성장했는지, 결산 영상을 시청하며 되돌아봤어요. 따뜻한 격려사도 듣고, 활동 여정을 마무리하고 성장한 하이샘, 하이드는 수료증과 표창장을 받았어요!

이후에는 하이 프롬 데이의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YEAR BOOK> 만들기에서 '하이! 빙고 게임'으로 커뮤니티 구성원과 인사하고, 장학생 활동 관련 질문에 답을 적고 공유하며 장학생 활동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만큼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수료식에서 하이샘, 하이드, 알럼나이는 앞으로의 만남도 약속했습니다.

최우수 활동 장학생 소감



김보은 하이샘

돌이켜보면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함께'라는 시간이 관계를 만들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을 이해하는 법과 책임감, 그리고 관계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으로 이어진 인연이 참 많습니다. 새로운 연을 쌓는 건 어렵고 두렵지만, 그만큼 좋은 경험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넓어지면 전에는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통해 세상은 넓고 우리의 가능성 또한 그렇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예원 하이드



표창장을 받은 김주환, 조은서 하이드



활동 소감을 발표하는 이예원 하이드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박예원 하이샘, 김경선 알럼나이

후기

하이샘

- 정말 멘토링을 마무리한다는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지난 10개월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꼈고, 출신 지역 발전에 더욱 힘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이드

-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 하이샘, 하이드, 알럼나이가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알럼나이

- 알럼나이 입장에서 수료식에 참여해 보니 그냥 다 뿌듯한 마음이에요!



스케치 영상 보러 가기



리스트 보러 가기

만족도

수료식을 통해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며, 스스로 성장했음을 느꼈다.

4.9



수료식을 통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장학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4.9



기간 2026. 3. 14.(토) ~ 3. 20.(금)

[5박 7일]

탐방 국가 독일

대상 최우수 하이쌤 10명,

최우수 하이디 6명

내용

문화 탐방

하이델베르크 성, 뢰머 광장,

쾰른 대성당 등

폐광지역 역사 및 문화 탐방

독일 보훔 광산 박물관,

줄페라인 등

대학 및 기업 탐방

하이델베르크 대학, 독일 현지 사회인

멘토 기업 (마인츠 대학 병원 등)



하이델베르크 대학 탐방 멘토링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미래, 하이 베르크 베르크

'Bergwerk(베르크)'는 광산이라는 뜻

활동 최우수 하이쌤 10명, 활동 최우수 하이디 6명에게는 해외탐방 혜택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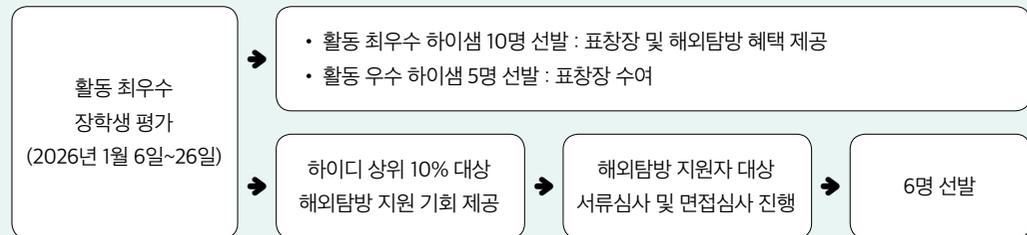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폐광지역 도시재생 성공 사례 도시에 방문해 해외 현지에서 경험하는 사회인 멘토링, 대학탐방 멘토링, 문화탐방, 네트워킹의 시간!

올해는 특별히 최우수 하이디 개별 심사를 통해 총 6명의 하이디가 선발되었어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미래 인재를 꿈꾸는 하이쌤과 하이디가 어떤 것을 느끼고 알아가며 더 성장할지 기대됩니다.

더 넓은 세상을 직접 보고 경험하며 시야를 넓히고 꿈을 더 확장하길 바랍니다!

활동 최우수 장학생 선발 과정



하이델베르크 성 문화 탐방

2025 해외탐방 후기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 등)

하이쌤

- [도르트문트 스타디움 탐방]
독일 축구팀 중 가장 좋아하는 팀인 도르트문트의 홈구장에 스타디움 투어를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 경기는 보지 못했지만, 프레스 룸, 라커룸, 벤치, 스탠드 등 구장 곳곳을 낚날이 탐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도르트문트 FC 스타디움 탐방

- [줄페라인 탐방]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줄페라인의 규모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산업유산이 대개 세련되게 재단장 되는 것과 달리,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보수만 거친 채 당시의 투박한 외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억지로 가리지 않고 세월의 흐름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독일 특유의 보존 철학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 지역을 떠올리며 차별성을 둔 전략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 [사회인 멘토링]
가장 기대가 많이 되었던 음악치료사 멘토님의 멘토링이었어요. 기대처럼 정말 병원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게 흥미로웠고, 자신의 다양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셔서 감동적이고 인상 깊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탄광 '줄페라인' 탐방

하이디

- [하이델베르크 대학 탐방]
독일 대학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 좋았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과 달리 건물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게 놀라웠다. 다른 건물에서 수업 들으면 찾아가기 힘들 것 같았다. 멘토님께서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역사를 들려주셔서 독일 대학에 관심이 생겼다. 우리나라 대학과 다른 점을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었다.

- [줄페라인 탐방]
예전에 석탄을 캐던 곳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생각보다 시설 규모가 커서 놀랐고,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광산이 아니라 문화유산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다. 산업의 역사와 변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Higher Community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하이디에서 하이쌤, 하이쌤에서 알럼나이, 그리고 사회인 멘토단까지 참여자들이 서로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연결 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10개월 동안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서 더 확장되고 끈끈해진 연결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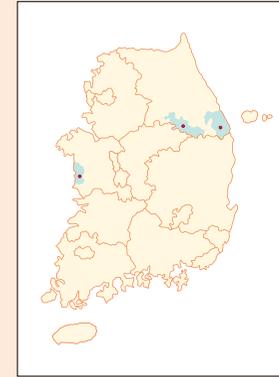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지도 뉴스

올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커뮤니티를 더욱 넓고 촘촘하게 연결하기 위해 더 많은 지역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 곳곳을 방문하며 대학생 하이샘, 청소년 하이디, 사회인 멘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폐광지역 스쿨어택 이벤트'는 작년 1개교에서 올해 5개교로 확대되어 더 많은 청소년과 만났습니다.
 학교를 가득 채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힘이 났던 12월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 활동은 석탄산업전환지역 내 청소년의 성장 지원, 교육 격차 해소,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방문 지역 확대

2024년 영월, 삼척, 보령



2025년 정선, 삼척, 문경, 보령, 화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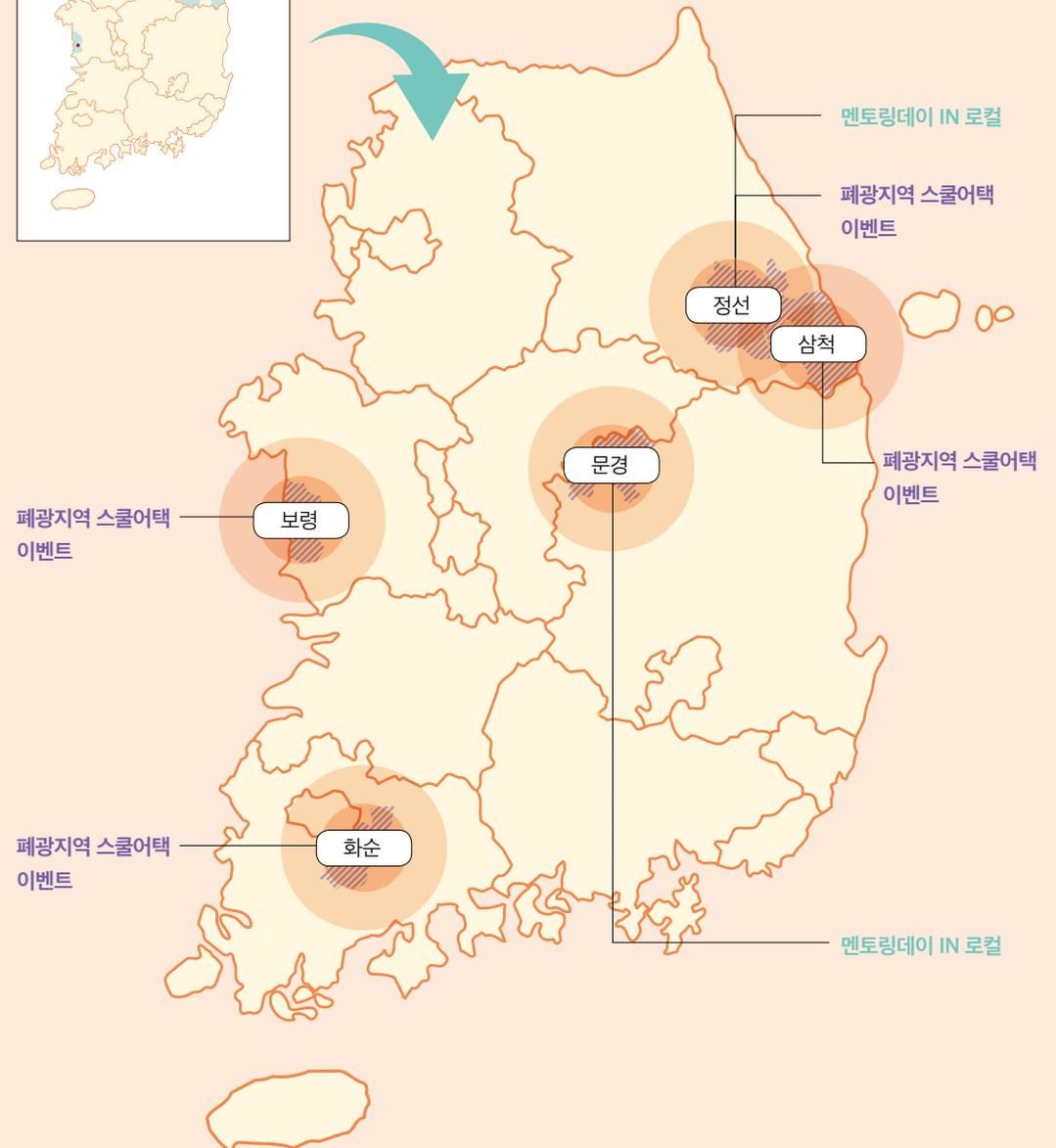




사진 작업실 '들꽃' 앞에서 웃고 있는 멘토님과 하이생들

정선, 사진으로 담다: 로컬 사진작가 멘토링

프로그램명 멘토링데이 IN 정선
멘토명 이해진 멘토
 (사진작업실 들꽃 대표)
일자 2025년 8월 27일(수)

고향 정선에서 8년째 사진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해진 멘토님이 창업 이야기, 사진 촬영 꿀팁 등을 나눠 주셨어요. 정선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때문에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창업 지원으로 사진관 창업을 하셨다고 해요! 멘토님은 대도시에서만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지역에서 조금씩 연습과 경험을 쌓고 도시로 가도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사진에 관심있는 하이생들이 모인 만큼, 사진 촬영 꿀팁도 전수받을 수 있었는데요! 2부에서는 하이생들을 위해 개인 프로필 촬영까지 해주셨답니다. 한 명씩 정성을 다해 사진을 찍고 인화해 종이 액자에 넣어 선물해 주셨는데요! 사진작가로서, 멘토로서의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한 하이생들도 좋은 추억으로 남았길 바라요!

참여자 후기

- 사진에 관심을 가져왔지만 어떻게 진로로 이어갈 수 있을지 막막한 마음이 있었는데, 멘토님의 현실적인 조언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지역 창업은 어떻게 차별화된 길을 찾아야 하고, 손님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가 필요한지 들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삶의 태도까지 배우게 된 시간이었기에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번 멘토링을 통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용기와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2부에 들어서서는 멘토님께서 사회인 멘토링에 참여한 멘티분들의 사진을 직접 찍어 인화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1부를 마무리하면서 들었던 '사진에는 사진가가 피사체를 보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이생, 알람나이분들이 굉장히 사랑스럽게 포착된 사진을 통해 멘토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찰나의 순간을 잡아 저장하는 이 행위를 정말 경애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 꿀팁을 설명 중인 멘토님



개별 프로필 사진을 찍어주시는 멘토님

문경에서 빚어낸 12년, 흠이 건네는 진심의 기록

프로그램명 멘토링데이 IN 문경
멘토명 김동준 멘토(도예가)
일자 2026년 1월 21일(수)



도자기의 역사를 설명해주시는 멘토님

문경에서 12년째 장작 가마로 달항아리를 빚는 도예가 김동준 멘토님의 작업실에서 멘토링을 진행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작업실 내외부 공간을 직접 설명해 주시며 투어도 해볼 수 있었는데요! 멘토링을 통해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된 계기, 학창 시절 이야기 등 하이생들이 궁금해하는 로컬 라이프 스토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이번 '멘토링데이 IN 문경'의 특별한 점은 온천이 유명한 문경에서 족욕 체험도 할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피로를 따뜻하게 풀어줄 수 있는 족욕을 하며 멘토님과 하이생들은 못다 나눈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멘토님이 꿈을 찾는 여정에 관해 이야기하실 때, 하이생들 눈빛이 반짝이던 게 기억나요! 도예가가 도자기를 굽는 일에 몰입한다면, 하이생들은 앞으로 어떤 일에서 몰입을 경험하게 될지 궁금해졌답니다.



도예 작업실 앞에서 단체사진

참여자 후기

- 멘토님이 알려주신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뒤척이며, 행복한 일이 계속 행복하지도 않고 불행하다고 해서 계속 불행하진 않다"는 말이 좋았습니다. 특히 저도 좋아하는 말 중 하나인 '진인사대천명'을 말씀하시면서 멘토님이 도자기 명인으로서의 가치관을 이야기하셔서 너무 감동했습니다. 저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할 때 멘토님처럼 몰입하며 증명하는 길을 꼭 써 내려가겠습니다!
- 작가님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으면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원래 그림을 꿈꾸다가 그냥 그림은 취미로만 삼고 살기로 결정했는데,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볼 수 있다는 게 존경스럽고, 또 부러웠습니다. 그림을 업으로 살지는 않지만, 작가님처럼 좋아하는 것에 열정을 쏟아부어 보고 싶어요.



족욕 문화 체험 후 웃고 있는 하이생들

따뜻한 간식차, 똑똑한 특강으로 채우는 겨울 추억

전국 석탄산업전환지역 고3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의 이벤트로, 석탄산업전환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직접 신청하시면 간식차와 함께 직접 찾아갑니다.

맛있는 겨울 간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소년을 응원하고, 대학 생활 & AI 특강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교육했는데, 특히 AI 특강에 참여한 청소년은 모두 MS(마이크로소프트) 명의 수료증을 받았어요.

입시 서포터즈 하이UP뿐만 아니라,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알럼나이가 특강을 진행해서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 알럼나이는 자신이 다녔던 학교의 모습과 달라진 게 없어서 신기하다고 덧붙였어요! 청소년은 같은 지역 선배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으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어요.



화순고 스쿨어택 이벤트 단체사진

진행 내용

- 폐광지역 고등학생을 응원하는 '간식차 이벤트'
- 입시 서포터즈 하이UP이 진행하는 '대학생활 맛보기 특강'
- IT 전공 대학생 멘토가 진행하는 'AI 교육 및 실습'

참여 학교 5개교

청소년 참여 인원 357명(특강 참여 인원 기준)

일정표

지역	학교	일정
화순	화순고등학교	2025. 12. 3.(수)
보령	주산산업고등학교	2025. 12. 12.(금)
정선	여량고등학교	2025. 12. 15.(월)
	정선정보공업고등학교	
삼척	삼척여자고등학교	2025. 12. 16.(화)

간식차 현장 미션 이벤트

- ①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인스타그램 팔로우 & 인스타 스토리 업로드
- ② '나의 선택은?' 보드판 투표(하이쌤이 된다면? / 하이쌤으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Q. 하이쌤이 된다면,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스티커 투표 진행 결과

1위 - 부스팅캠프

2박3일 캠프에서 교육/탐방/멘토링 추억 만들기

2위 - 사회적 멘토링

다양한 직무의 멘토님께 취업/진로 꿀팁 배우기

- ③ 꿈키움 멘토링 신청, 스쿨어택 이벤트 후기 작성, 간식 인스타 스토리 업로드 중 1개



겨울 간식을 받고 행복해 하는 청소년



하이쌤으로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 투표

청소년 만족도 및 후기

만족도



AI 특강을 통해 AI의 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대학생활 특강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다.



현장 이벤트를 통해 미션을 수행하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 더욱 관심이 생겼다.

후기

●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의 장점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대학생이신 분들과 이야기해 보니 대학 관련된 고민들이 조금 해결된 것 같았다.

● 사실 대학 생활이 인터넷, 유튜브 등으로 많이 찾아볼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았는데 이번 경험을 통해서 궁금했던 것들을 얘기해서 너무 좋았어요!

● 점심을 먹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간식차 이벤트로 친구들의 배가 채워지고 마음도 따뜻해지는 날이 된 것 같아서 인상 깊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 장기지원 하이디로서 하이쌤까지 고민 중이었는데, 하이쌤의 활동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다.

● AI를 사용하는 방법만 배웠었는데 이번 특강으로 관련 직업을 알게 되어 새롭고 좋았다.



간식차 이벤트에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 선생님 후기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 교육적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석탄산업전환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지원 제도로 여러 번 지원받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꾸준한 지원 또한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소외되는 지역에 직접 찾아와 주시는 것”

“지역 사회 순환, 서로서로 같은 지역을 위해 지속적 지원”

“멘토들의 정서적 지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위한 민망하고 솔직한 질문을 멘토에게 할 수 있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고 있는 모습을 봤다”

같은 관심사로 연결된 알럼나이와 하이샘 그리고 하이드

프로그램명 Higher 커뮤니티 소모임
활동 기간 2025년 9월 ~ 2026년 1월(5개월)
진행 소모임
- 사진 및 기록 모임 <나의 재징 앨범>
- 독서 모임 <마음 책갈피>
- 스터디 모임 <타임어택>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5개월 동안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는
Higher 커뮤니티 소모임이 운영되었습니다.
Higher 커뮤니티 소모임은 하이샘, 하이드, 그리고 알럼나이가 함께 모여 같은
관심사를 기반으로,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총 세 개의 주제로 진행된 소모임에는 총 25명의 커뮤니티 구성원이 참여해
각자의 방식으로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행한 소모임은 다음과 같아요.

- 사진과 기록을 통해 일상을 돌아보는 <나의 재징 앨범>
-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마음 책갈피>
- 목표를 세우고 함께 공부하는 <타임어택>

그럼 각 모임원들이 5개월 동안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나의 재징 앨범> “순간을 기록하며 우리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

링커 박정인 알럼나이
멤버 고영호·김주영·김준길·이소연·이승민·전소연·최한별 하이샘



북촌과 서촌 일대 출사

사진과 기록을 통해 일상의 순간들을 담아내고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링커 박정인 알럼나이는 영화 '소울(Soul)'의 "I'm jazzing!"이라는 대사에서 영감받아 각자의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그 순간이 모여 하나의 이야기와 기억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소모임을 기획했습니다. 참여자들은 노선을 활용해 각자의 기록 앨범을 만들고 사진, 글, 생각을 자유롭게 남기며 일상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정기 출사를 통해 가을 단풍 촬영과 야경 촬영 등 오프라인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며,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순간을 기록하는 경험도 만들었습니다.

참여 후기

- 따뜻함을 얻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시선으로 순간을 기록하는 법을 배우고, 사진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소모임 활동을 통해 좋은 인연을 얻었습니다. 함께 잘 뭉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발휘해 좋은 사진과 글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함께하는 즐거움과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 책갈피>
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들어다보다**

링커 김희성 알럼나이

멤버 김경은·김보은·정주경·진준엽 하이쌤, 장한솔·조은서 하이디, 장유리 알럼나이



2회차 정기 모임



함께 읽은 도서들

책을 매개로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만드는 독서 소모임입니다. 참여자는 매달 한 권의 책을 함께 읽고 독서를 통해 떠오른 감정과 생각을 글로 정리한 뒤 정기 모임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모임은 크게 함께 읽는 이달의 도서, 감정과 생각을 기록하는 감정 일기,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독서 대화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 정기 모임에서는 각자가 읽은 책의 문장과 느낀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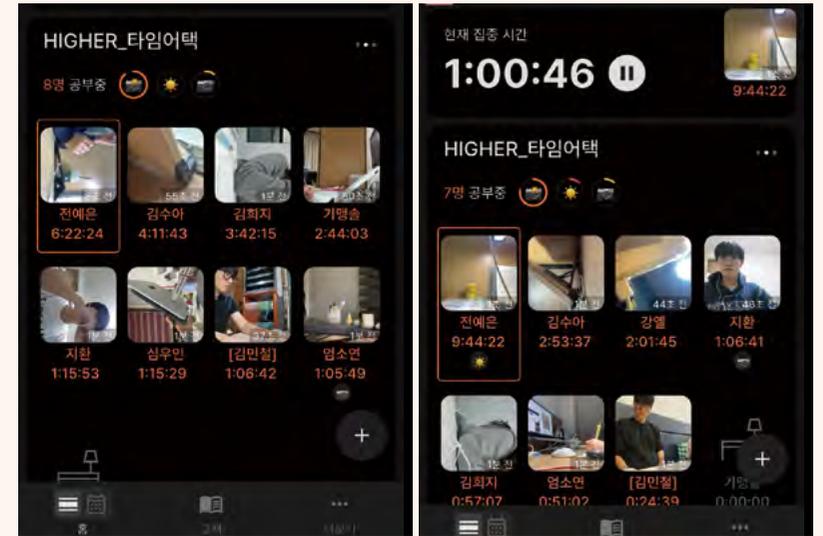
참여 후기

- 이번 활동은 좋아하는 장르만 고집하던 제 모습을 바꿔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라면 잘 읽지 않았을 책을 접하면서 독서의 폭이 넓어졌다고 느꼈고, 독서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이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이 좋았습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장르의 책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부족하다고 느껴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 독서 후 다양한 삶의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며, 한 가지 시각에 머물러 있던 사고가 점차 넓어지고 성숙해졌음을 느꼈다. 또 감정 일기를 작성하며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나의 감정과 생각을 마주할 수 있어 좋았다.

**<타임어택>
함께 공부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링커 전예은 알럼나이

멤버 김민철·김한솔·김희지·손지환·심우인·염소연 하이쌤, 강예리·김수아 알럼나이



정기 스터디 진행

<타임어택>은 목표를 가진 하이쌤과 알럼나이가 함께 정해진 시간 동안 집중해 공부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스터디 소모임입니다. 참여자는 온라인 스터디 플랫폼을 활용해 각자의 공부 시간을 기록하고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각자의 목표는 달랐지만 같은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여 후기

-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와 힘이 되었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배웠습니다.

Higher 커뮤니티 소모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나 관심사 공유를 넘어,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의 시간을 응원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사진으로 일상을 기록하고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고, 커뮤니티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경험을 만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Higher 커뮤니티 소모임은 구성원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럼나이와 하이שמ이 함께한 따뜻한 시간

진행 일시 2026. 3. 7.(토)
11:30 ~ 15:00

진행 내용

- 1보 하이שמ과 알럼나이가 함께하는 직무별 테이블 네트워킹
- 2보 알럼나이 네트워킹

알럼나이는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든든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알럼나이 간담회에 하이שמ을 초대해 하이שמ이 가진 취업과 대학 생활에 대한 고민을 알럼나이 선배와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이שמ은 선배의 경험을 들으며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럼나이는 후배와의 만남 속에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다시 한번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교육, 방송, 마케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알럼나이가 참여해 자신의 진로 선택 과정과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하이שמ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직무 이야기가 오가는 가운데 하이שמ은 평소 궁금했던 질문을 직접 묻고 답을 들으며 진로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알럼나이는 계속해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든든한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러 간 자리였지만 오히려 에너지를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찾기 어려운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커뮤니티는 알럼나이와 하이שמ이 자연스럽게 만나 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다양한 네트워킹의 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이שמ 후기

교육/교사/임용

임용과 관련해서 루틴 및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공부 방법, 2차 수업 실연, 멘탈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더 진전할 힘을 얻어서 좋았다.

문과/마케팅

하이שמ에서 알럼나이가 되어 인사이트를 주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알럼나이와 소수로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과/HRD/항공

입사 준비 때, 기업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직무나 개인 역량에 대한 고민만 했는데, 취업하고 싶은 기업에 관해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도체/공학

알럼나이 분과 다른 전공이었음에도 알고 있는 걸 최대한 알려주려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하이שמ의 질문에 솔직담백하게 답변해 주셔서 재밌게 진행했던 거 같습니다.

방송/미디어/언론

멘토링을 받으면 보통 기자나 아나운서, PD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방송작가를 뵈게 되어 신선했습니다. 다음에도 언론 멘토링이 있다면 꼭 참여하겠습니다.

카드사/심사 업무

정부 지원으로 해외 인턴 경험을 쌓는 방법, 해외 인턴을 하면서 쌓을 수 있는 경험(커피 챗 문화, 커뮤니티) 등을 알려주셔서 제 진로 계획이 보다 더 넓은 방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직무별 테이블 네트워킹



직무별 테이블 네트워킹



하이שמ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여의진 알럼나이

알럼나이 후기

- 2~3년 전 사회로 어떻게 잘 나갈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던 제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라도 더 잘 알려주려 아낌없이 응원과 노하우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이שמ 후배들이 또 잘 성장해서 같은 직무나 같은 회사에서 볼 수 있으면 그것 또한 큰 임팩트가 될 것 같네요!

- 장학생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이제는 또 다른 장학생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많이 뿌듯하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하이שמ 활동을 했던 사람들과도 오랜만에 만나 즐겁게 대화 나누어 행복했습니다!

- 수업하거나 연구회 활동을 할 때 여전히 강.멘장에서 배운 기술과 교수법을 녹여내 사용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럼나이, 하이שמ과 만나 수업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수업, 이런 선택도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할 용기도 생깁니다.

- 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하이שמ의 질문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업에 지친 제가 학생 때 가지고 있던 열정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한동안 일에 동력을 얻을 것 같습니다. 도움을 주러 갔다가 오히려 배우고 왔습니다.

권상혁 알럼나이

기대한 것 이상의 시너지 얻을 수 있어요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백 출신 권상혁 알럼나이입니다.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수동적인 편이라 어떤 색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밝은 색상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하이שמ으로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수료식에 참석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하이שמ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질 수 있었고, 우수 멘토링 사례를 들으며 그분들의 열정과 능력을 보고 배울 수 있었거든요.

Q. 알럼나리로 활동하면서 '내가 석탄산업전환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이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저의 알럼나이 첫 활동인 이번 '알럼나이 간담회'에 참여해 하이שמ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석탄산업전환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회인 알럼나이로서 하이שמ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다른 알럼나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돈독해졌어요.

Q. 상혁 알럼나이의 지역 친구, 선후배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함께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서 각자 얻은 정보나 새롭게 배운 것을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더 큰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알럼나이 간담회 때도 태백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서 더 재밌고 뜻깊었어요.

Q.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라나요?

대학생, 취업 준비 과정, 취업한 이후까지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유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석탄산업전환지역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Q. 하이שמ, 하이다, 알럼나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알럼나리로 함께 활동 중인 친구들의 이야기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는 하이שמ과 알럼나이를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습니다. 최대한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많은 것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여의진 알럼나이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답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색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일까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서 하이שמ으로 활동했고, 현재는 알럼나이가 된 여의진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동기들이 보는 나의 색깔'을 고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동기들이 저를 노란색으로 표현해 주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으로 분위기를 풀어내는 제 모습을 보고, 밝고 따뜻한 노란색을 떠올려 주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서 인터뷰를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 기억에 남거나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있을까요?
EBS 방송 촬영을 했던 날인 것 같아요. 폐광지역의 교육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나눔의 선순환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강원도 정선에서 대학교 강의실, 그리고 서울 스튜디오까지 이동하며 촬영을 했어요. 특히 하이다의 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멘토링을 하고, 더 완벽한 연출(?)을 위해 NG를 내며 웃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 참여하면서 저의 작은 노력이 변화를 만드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Q. 알럼나리로 활동하면서 '내가 석탄산업전환지역 커뮤니티 구성원이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하이שמ과 하이다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수 장학생을 독려하기 위한 혜택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지역의 선순환을 위해 많은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Q. 의진 알럼나이의 지역 친구, 선후배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에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함께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가장 큰 장점은 끊임없이 우리 지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어딘가에는 우리 강멘장 친구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졸업 후에도 하이다를 통해 모교 소식을 전해 듣고, 가끔 동료 하이שמ을 만나 멘토링 추억을 나누다 보면, 늘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Q. 앞으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기 바라나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다른 장학 프로그램과는 달리, 그 목적이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멘토가 되어 주고 또 지역 안에서 선순환을 만들어 가는 데에 의미를 두죠. 앞으로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이끌어 주는 관계가 계속 쌓인다면 결국 지역 안에서도 더 큰 변화와 가능성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그 연결이 오래오래 이어지면 좋겠어요.

Q. 하이שמ, 하이다, 알럼나이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하이שמ으로 활동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순간이 얼마나 보람찬는지 더 크게 느낍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인연과 경험을 마음껏 즐기고,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자리에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수현 멘토

진짜 도움이 될 한마디 나눌 수 있어요

#커리어 멘토링



이수현 멘토가 진행한 멘토링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기록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SumOne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이수현입니다. 일상에서도 저는 '기록'을 좋아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기 위함인데, 기록은 지난 날의 과정을 돌아켜볼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사회인 멘토로 참여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진로 고민과 경력 설계의 주제로 멘토링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어떤 방식으로든 고민 많을 시기에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위로받았던 때를 생각하며 저도 응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하이생들의 빠른 신청으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Q. 하이생의 첫인상이 궁금해요!

피곤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모여 뭔가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엄청나게 경청하고 기록까지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놀랍고 고마웠어요.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지만, 언젠가 꼭 직접 만나 응원과 온기를 나누고 싶다고 마음먹을 만큼요.

Q. 멘토님의 대학 시절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하이생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양성에서 오는 혼돈이라고 느꼈어요.

10년 전 대학생들을 만날 때만해도 전공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지, 어떤 기회와 방향성을 설정하는지 고민이 주를 이뤘는데 지금은 직무적 제약뿐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도 거의 없는 진로 세계를 탐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크게 체감되었어요.

Q. 멘토링 과정에서 멘티에게 가장 강조했던 '직무 노하우'나 '사회생활의 태도'는 무엇이었나요?

'궁금해하기'예요. AI 시대가 도래하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무슨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궁금한 만큼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한 만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사회생활을 통해 배웠어요. 지금도 호기심이라는 도구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발견한 나를 통해 성장한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 모든 것은 질문을 통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타인을, 그리고 조직과 일을 궁금해하며 질문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Q.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미래 세대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면 좋을까요?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쏟아지는 정보와 기술 속에서도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같은 길을 걸어본' 누군가의 한마디 같아요.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특수환경 속에서 보낸 시간과 자원은 다시 그곳에서 성장하고 꿈꿀 새싹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유일한 경험이 될 거라 믿어요. 비슷한 고민을 할 다음 세대를 위해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선순환에 함께 할 날을 기다리며, 미래의 저도 응원할게요!

신승협 멘토

함께 성장하게 해줘요

#커리어 멘토링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서 사회인 멘토링을 진행한 신승협입니다. 현재 HD현대일렉트릭에서 신사업기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사회인 멘토로 참여한 소감이 궁금해요.

대학 시절 장학생으로 활동했던 제가 직장인이 되어 사회인 멘토로 후배들을 다시 만나니 감회가 무척 새로웠습니다. 과거 멘토링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누군가의 성장을 응원하는 역할로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뜻깊게 다가왔습니다.

Q. 하이생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첫인상이 어땠나요?

하이생의 눈빛에서 진지함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커리어의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주도적으로 질문하는 모습이 과거의 저 같아서 반기웠습니다.

Q. 멘토님의 대학 시절과 비교했을 때, 요즘 장학생들이 가진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거보다 진로의 선택지가 훨씬 다양해진 만큼, 역설적으로 '나에게 맞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불안과 부담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남의 정답을 좇기보다, 자신의 기준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에만 머물기보다 작게라도 직접 부딪혀보고 경험하며, 스스로의 확신을 찾아가기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Q. 하이생과 대화 나누며 멘토님 스스로 새롭게 깨닫거나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하이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제가 어떤 고민을 거쳐 지금의 방향을 선택해 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불안과 고민이 크게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과정이 결국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에 답하는 과정이 결국 저의 방향을 더 분명히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저에게도 큰 배움이었습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이 다른 장학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청소년-대학생-사회인'으로 이어지는 성장의



신승협 멘토가 진행한 멘토링

선순환 구조를 직접 경험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지속 가능한 임팩트를 만들어내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어떤 사회인 멘토가 되고 싶으신가요?

새로운 길을 처음 걷는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렵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남긴 발자취가 후배들에게는 작은 이정표가 되어, 조금 덜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만의 발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멘토링으로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고민의 순간마다 언제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사회인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Q. 석탄산업전환지역의 미래 세대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면 좋을까요?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 주세요!

자신의 출발점을 한계로 여기지 않는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보다,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해하지 말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작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걸음이 언젠가는 다음 세대의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경민 멘토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의 기회가 가득해요

#하이섬 출신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릉에 있는 디자인씽킹뮤지엄에서 학예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사람들이 문화 예술에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박물관 운영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Q. 하이섬에서 사회적 멘토가 되셨는데요! 후배 하이섬들과의 멘토링은 어떠셨나요?

각자의 고민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제하고 있는 일에 대한 초심을 떠올리고 앞으로의 동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에너지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하이섬, 하이디, 사회적 멘토가 나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선순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하이섬일 때 사회적 멘토링을 들으며 학업과 목표 설정에 대해 많은 동기 부여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멘토가 되어 하이섬의 열정과 제가 가졌던 것과 비슷한 고민을 보며 다시 한번 열정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고 서로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나눌 수 있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이 다른 장학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이섬과 하이디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험을 나누는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학생이 알람나이가 된 이후에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울타리 안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고요.

Q. 앞으로 어떤 사회적 멘토가 되고 싶으신가요?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활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기억과 인연을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하이섬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하며 느꼈던 도움과 조언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Q. 멘토님처럼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나고 자란 후배 청소년과 대학생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 주세요!

저는 사실 석탄산업전환지역을 떠나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고, 희망하던 대학교에도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땐 제 미래가 어두운 것만 같아 막막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땐 대학교가 인생의 전부인 것만 같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만들어 나가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과 걱정이 많은 석탄산업전환지역 후배들에게, 지금의 환경이나 한 번의 결과가 여러분의 가능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때로는 원하는 길로 바로 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을 놓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자란 선배로서 여러분의 앞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혜진 멘토

자신의 속도대로 '나'를 키우게 도와줘요

#로컬 멘토링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 찍는 이혜진입니다. 정선에서 8년동안 사진작업실 '들꽃'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프로젝트 들'이라는 이름으로 춘천을 거점으로 강원 전역에서 출장 촬영 및 프로젝트성 사진 촬영을 계획 중입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의 사회적 멘토로 참여한 소감이 궁금해요. 어떠셨나요?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묶이는 우리는, 밖에서 만나면 너무 반갑고 전우애 같은 마음이 생겨요. 제가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서 사진 찍는 수업을 더 해주지 못하게 아쉽지만, 사진 찍는 수업보다 그날의 이야기가 그 친구들에게는 더 중요했을 거라 생각해요.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하이섬, 하이디, 사회적 멘토가 나눔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선순환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지역 출신 중에 제 또래는 대부분 지역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많죠. 어릴 때부터 "왜 여기 있니", "나가야 성공한다"는 말을 들으며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무턱대고 떠나 힘들어도 버티는 것보다, 지역에서 '나'라는 사람을 편안하게 검증하고 충분히 연습해 보고 자존감 가득 채워서 나갈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커요.



속도는 저마다 다르니까 저처럼 삶의 속도가 남보다 조금 더디고 멀리 가고 싶은 사람들은 지역에서 여러가지 실험하며 '나'라는 사람을 키워내기 너무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사회적 멘토로 지역을 지키고 있는 사람과의 연결도 마구마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더 선순환적으로 멘토링 장학이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Q.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이 다른 장학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진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막막한 진로를 가진 친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어떤 사회적 멘토가 되고 싶으신가요?

이제 저는 거점을 춘천으로 옮기게 됐지만, 내 출신 지역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사람일 거예요. 정선에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그 고민을 했고, 그 고민을 시작으로 '사진관'을 차리게 된 건데, 저는 밖에 나와서도 그 고민을 하며 살고 싶어요. 우리 지역의 다음을 고민하는 어른이 되어가고 싶어요.

Q. 후배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 주세요!

지역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 주세요.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 든든한 영양분을 먹고 자랐던 곳이라 생각해 주세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알게 모르게 폐광과 강원랜드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으니,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나는 타인에게 어떤 걸 베풀며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역을 향해도 좋고, 지역 출신 후배어도 좋고, 옆집 이웃이라도 좋아요! 베풀며 살아요, 우리!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은 나에게 _____ 다.



반복 재생

한 음악을 여러 번 듣다 보면 처음엔 듣지 못했던 악기의 소리나 멜로디의 전개도 발견하게 된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역시 매해 참여할 때마다 하나씩은 배워간다는 점에서, 반복 재생이 주는 새로운 통찰처럼 느껴진다.

끝없는 계단

많은 지원과 도움 아래 무궁무진하게 성장하고 나아갈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일기장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프로그램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또는 네이버 블로그에 소개되거나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과 관련한 프로그램 소식이 올라오면 종종 보게 된다. 내가 하이디였을 때와 하이샘이 되고 난 후를 비교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다양한 하이샘과 알럼나이, 하이디를 만날 수 있고 여러 행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나의 발전을 위한 샘이다!

내 고향

대학 생활을 하며 자연스레 고향과 거리가 생기고, 마음도 멀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강멘장을 통해 출신 지역 하이디, 다른 하이샘과 알럼나이를 만나며 고향 생각과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다.

기회

그동안 우물 안에서 갇혀 있던 나 자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등지

하이디에서 하이샘, 알럼나이를 거쳐 사회인 멘토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후배들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함께 달리는 페이스 메이커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이곳은 언제든 다시 돌아와 좋은 영향을 보태고 싶은, 소중한 등지다.

KTX

전국을 빠르게 이어주는 KTX처럼 강멘장도 흩어져 있던 동향 사람들을 하이샘과 하이디라는 따뜻한 이름으로 끈끈하게 연결하기 때문이다.

연필

멘토링을 통해 정답이 아닌 '나만의 답'을 계속 써 내려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정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한 후 나의 꿈과 도전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리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내 세상이 넓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분 좋은 바람

지나가는 시간이지만 기분 좋은 바람을 느낀 나는 좋은 기억을 계속 간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선순환

멘토링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이 받은 도움과 응원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배들에게 받은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멘토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선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태민

내 삶을 보다 영양가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이샘 활동보고서

배움을 나누며 함께 성장한 시간

화순 김세아 하이샘

이번 주에는 수학 '원의 성질' 단원을 시각 자료와 예시를 활용해 차근차근 수업했습니다.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며 사고를 유도했고, 하이디가 스스로 설명하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이번 주는 저도 많은 성장을 느꼈습니다. 학생마다 이해 속도와 학습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업의 속도와 난이도를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이디 개개인의 학습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멘토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태백 김태웅 하이샘

이번 주에는 영단어 퀴즈로 단어 학습을 진행하고, 국어 문법에서는 품사 정리, 단어의 개념, 명사의 하위분류 등을 학습했습니다. 단순히 '분류'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왜 그렇게 분류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하이디들이 그동안 주입식으로 외우기만 했는데, 이유를 알게 되니 훨씬 재미있다고 말해주며 매우 뿌듯했습니다. 개념을 최대한 구조화해 설명하니 하이디들의 이해도와 학습 효과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진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월 고영호 하이샘

지난 시간의 강의 내용인 기둥과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복습을 진행했다. 세부적인 공식을 다시 다루기보다는, 기둥이 어떻게 형성되고 기둥에서 파생된 뿔과의 관계성을 설명하려 노력했다. 이후 구체의 부피와 겹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중학교 때 어렵게 느껴졌던 구의 겹넓이와 부피 파트를 경도에게 가르쳐 주며 신기하게도 즐거움을 느꼈다. 그때도 수학 수업 시간에 이렇게 즐거움을 느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속마음을 들으며 가까워진 시간

보령 김리안 하이샘

하이디와의 관계가 단순 멘토와 멘티를 넘어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이디들의 성장을 체감하면서 저 또한 멘토로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이디들이 배우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 제 역할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수업할수록 하루를 알차게 마무리하는 기분이 들고, 멘토링을 통해 저 역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태백 우초율 하이샘

요즘 하이디들과 일상에 대해 자주 얘기하는데, 연말인지만 하이디들의 최대 고민 중 하나인 진로, 대학, 성적 등과 관련해 특히 많이 이야기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하이디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주고 위로, 공감해 주는 시간을 가지며 하이디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삼척 김예은 하이샘

하이디가 '이번 한 해 가장 감사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저를 꼽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함께한 시간들이 하이디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는 말에 뿌듯함을 느꼈고, 저 역시 하이디와 함께하며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신뢰와 마음의 교류가 앞으로의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곁에서 진로를 찾아주는 시간

화순 김도연 하이샘

간호학과를 꿈꾸는 하이디와 '홀랜드 검사'를 진행하며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간호 분야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은 하이디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형 성향으로, 병동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고, 예술형 성향이 높게 나온 유빈 하이디는 창의성과 감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 중 웰다잉 간호 분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연 하이디는 가장 높게 나온 사회형 성향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각자의 성향을 기반으로 진로를 고민하며, 하이디들이 조금씩 자신만의 진로 상을 구체화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태백 김민영 하이샘

하이디의 학교 성적도 나왔고, 2026년부터 고3이니 본격적으로 대학교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하이디가 웹툰, 만화 등 그림 분야로 진학을 희망했기에 지금까지의 진학 상담은 실기를 생각하고 대학교를 찾아보았는데, 하이디가 실기 준비 상태를 고려해 실기가 아닌 포트폴리오 전형을 준비하기로 정했다고 해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디의 희망 진학 기준과 생기부를 기반으로 입시 정보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고, 하이디가 희망하는 대학교를 먼저 찾아봤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함께 성장한 시간

정선 강주연 하이샘

이번 주에는 '요즘 나를 가장 설레게 하는 순간은?', '나만 알고 있는 장소나 음식점은?',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의 장면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민주가 사복에 여러 숨겨진 맛집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국밥과 짜장면 맛집 두 곳을 소개해 줬는데, 나중에 사복에 방문하게 된다면 꼭 들러 보고 후기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는 점으로 친밀감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태백 엄소연 하이샘

이번 주는 '태백 출신'이라는 공통점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포근한 분위기 속에서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대화 중에 "태백 ○○동 근처 알아요?", "저도 거기 자주 가요!" 같은 말들이 오갈 때마다 낯선 사이가 아닌, 오래된 이웃처럼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추억이 겹치는 장소를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고, 하이디들도 "우리 다 태백 사람이네요?"라며 반가워했습니다. 이런 공통의 지역 배경이 수업 분위기를 더 포근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척 이승민 하이샘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면, 매주 무조건 내 편인 누군가를 만나서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상당히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옛말에 '사람이 든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안다'는 속담처럼 벌써 멘토링이 끝났다는 것이 실감이 나 더 아쉽고 서운하다. 멘토링은 나의 실질적인 생활에도 큰 보탬이 되었지만, 정서적으로 더 많은 안정을 줬다. 고향 후배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자주 본가에 가지 못하는 나에게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래서 멘토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하이디 성장 포트폴리오

차근차근 배우며 성장한 시간

영월 박가원 하이디

학습 과정에서 어려운 개념이나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하이샘은 명확한 설명과 효과적인 학습 방향을 제시해 줬다. 특히 국어 지문 분석의 깊이를 더하거나 사회 과목의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 멘토링은 학업에 폭넓은 시야와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한다고 느껴졌다.

문경 박윤솔 하이디

평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번 수학 학습 때엔 수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다. 덕분에 전에 비해 수학에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실력도 늘어 정말 뿌듯했다.

정선 백하성 하이디

하이샘과 함께 공부한 시간을 돌아보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에게 이런 쪽을 공부하고 싶다고 의견을 전하면 바로 수용해서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 덕분에 영어 공부가 훨씬 수월해지고 자신감이 생겼다. 내가 사는 곳은 여량면 소재지라서 학원도 없고 다른 선택지가 없었는데,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을 만나서 많이 성장했다. 내년이 더 기대된다.

태백 한리울 하이디

수학 점수가 중간고사 때보다 30점이나 올랐다.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아서 수학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복습하며 시험 준비를 했다. 여러 번 복습하니 헛갈리던 문제를 푸는 요령이 조금씩 생긴 것 같다. 엄마도 매우 기뻐하셨다. 이번 시험을 계기로 꾸준히 반복하며 열심히 하면 점수가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마음을 돌보며 단단해진 시간

영월 홍선우 하이디

수시 원서 쓰고 면접 준비하느라 벌써 시간을 다 썼네요. 고1부터 시작한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업의 하이디로 시간을 보낸 것도 안 믿기네요. 아직도 고1에 머물러 있는 거 같은데 말이죠. 면접 준비 때문에 힘들지만, 하이샘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거 같아요. 아직 몇 년 안 해봤지만 항상 할 때마다 너무 즐겁고, 대학생이 되면 하이샘으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보령 위은오 하이디

하이샘과 함께 시를 쓰며 정신적인 피로를 덜 수 있었고, 필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학적으로 발전하는 자신을 보며 낮아졌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에 참여해 저 자신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순 서다빈 하이디

하이샘과 멘토링을 하면 항상 위로랑 힘을 받는데! 이번 달에는 학생회 일정 때문에 바빴고, 특히 회장이라 총괄 역할을 해야 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멘토링 때 하이샘께서 공감해 주시고 대단하다고 해 주셔서 힘들고 지쳤던 마음을 다잡고 파이팅 넘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정선 권윤서 하이디

대학 결과 발표와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여유로운 마음보다는 하이샘과 하는 활동 속에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얻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새로운 대학 생활을 위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멘토링을 통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조금씩 준비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 같습니다.

미래를 그리며 나아가는 시간

삼척 간선정 하이디

이번 달은 하이샘과 대학 얘기를 했다. 평소 혼자서만 대학을 찾아보고 고민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이샘께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갈 수 있는 대학도 찾아보고, 다양한 과도 찾아보면서 목표가 생겼다. 아직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지 못했는데 가고 싶은 대학도 생겼고, 그 대학 것이 높아서 의지와 열정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보령 유혜원 하이디

하이샘과 대학 입시에 관해 공부하며 입시에 대한 여러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대학이 여름방학 직전 모의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과 생기부 작성 팁 등이다. 대입에 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과의 수업에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월 한지유 하이디

멘토링에서 헤어 디자이너라는 진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멘토님이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소통 능력, 창의성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강조하며, 고객의 분위기와 개성을 찾아주는 '이미지 메이커'라는 점을 알려 주셨다. 수업을 들으며 진로를 선택할 때 기술적인 능력뿐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성장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 '전문직의 자세'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다.

정선 한수빈 하이디

이번에 원하던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결과를 알기까지 많이 불안하고 걱정됐는데, 총원 합격 발표 전화가 와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후회도 있지만 스스로에게 정말 고맙고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회복지사라는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임팩트 보고서

함께 만드는 내일의 성장

발행 2026년 3월
총괄 기획 (주)강원랜드 ESG정책팀
콘텐츠 제작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 사무국
디자인 네거티브 에이치(negative H)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저작권자 © 강원랜드

※ 2025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사업 임팩트 보고서의
저작권은 주관사에 있습니다. 임팩트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재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Copyright 2025 All rights reserved

KANGWONLAND MENTORING

SCHOLARSHIP

2025 Impact Report